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도입 방안

홍 정 훈

2006. 2.
머 리 말

금융회사의 가장 주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로 위험관리를 들 수 있다. 위험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위험의 인식이다. 위험관리가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위험으로 인식되지 못하던 요소들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데 환경위험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환경위험이 금융회사에 중요한 위험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 미국의 환경법인 CERCLA(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가 제정된 것과 관련이 있다.

CERCLA에는 기업이 환경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환경 정화 비용을 대출금융회사에 부담시킬 수 있는 대부자 책임(lender liability)이 규정되어 있는 데 실제 이로 인해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경제발전에서 환경보전이 주요 이슈로 부각된 것도 세계의 주요 금융회사들이 환경을 주요 경영문제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영국과 독일 등 다른 선진국의 환경법에는 대부자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들 국가의 금융회사들은 사실상 이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금융회사들은 환경위험을 주요 위험원천의 하나로서 파악하고 환경위험관리를 금융회사의 전반적 위험관리에 통합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의 FDIC 등 금융감독기구에서는 환경위험관리를 위한 지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 은행 등 금융회사가 민간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가능성이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기업 활동의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요소가 금융회사의 여신결정 과정에 유기적으로 연관된다면 환경의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초가 될 수 있
금융회사의 환경요인에 대한 고려가 기업의 환경관리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선진국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금융회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화되고 있다. 선진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환경위험을 새로운 사업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적인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 금융회사에서는 환경위험을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위험관리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 감독기관에서도 환경위험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토양환경보건법이 개정되는 등 환경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으며, 여신 기업 또는 투자 대상 기업의 환경사고로 인해 금융회사의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환경위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환경위험의 개념에 대해 소개한 후, 우리나라에서 환경위험에 대해 평가하고 특히 문제를 보는 대부자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한편, 아직까지는 실제적인 환경위험이 비록 심각한 위험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도 금융회사도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환경위험에 대한 관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환경위험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국민대학교 경영학부의 홍정훈 교수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익명의 심사자 2인은 본 보고서를 세밀히 읽고 유익한 조언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6년 2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최 흥 식
# 목차

## 요 약

I. 서론 .................................................................................................................. 1

II. 금융회사의 환경위험의 의의 ................................................................. 5
   1. 환경위험의 개요 .................................................................................. 5
   2. 금융회사에서의 환경위험의 분류 ...................................................... 7
   3. 금융회사에서의 환경위험의 내용 ................................................. 11

III. 주요국의 환경책임 및 대부자 책임 현황 .............................................. 26
   1. 미국 ................................................................................................. 26
   2. 대부자책임에 관한 국제적 동향 .................................................... 31
   3.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위험과 대부자책임 ......................................... 35

IV.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 45
   1.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필요성 ................................................... 45
   2. 환경위험관리의 기본 전략 ............................................................... 47
   3. 관련 기관의 환경위험관리 지침 .................................................... 50
   4. 우리나라 금융회사에서의 환경위험관리 전략 .................................. 54
V. 환경성과와 재무성과의 관계 분석 ........................................... 58
    1. 서론 .......................................................... 58
    2.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 59
    3. 환경성과 측정을 위한 설문 .................................. 65
    4. 재무비율과 환경성과의 관계 분석 ............................ 69
    5. 부도확률과 환경성과의 관계 ................................. 72
    6. 시사점 ....................................................... 82

VI. 환경관련 금융상품 ..................................................... 84
    1. 금융회사의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 ........................ 84
    2. 환경 및 지속가능성과 투자 .................................. 85

VII.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도입 .............................. 97
    1. 환경위험관리 시스템의 원칙 ................................ 97
    2. 환경위험관리 전략의 개발 .................................. 107
    3. 우리나라 금융회사를 위한 환경위험관리매뉴얼 예시 .......... 116

부록 A : UNEP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 성명문 ......................... 119
부록 B : 환경심사의 단계 ............................................. 127

참고문헌 ............................................................... 136

Abstract ................................................................. 140
표 목 차

<표 1> 부문별 환경위험 ................................................................. 6
<표 2> 신용공여를 위한 위험평가 범주 ........................................... 9
<표 3> 환경성과 평가를 위한 주요 평가항목 ....................................... 6
<표 4> 전체기업, 상장기업, 표본기업의 평균 재무비율(2001~2003) ··70
<표 5> 환경성과와 재무비율 상관계수 ............................................ 7
<표 6> 주요 재무비율 ...................................................................... 5
<표 7> 로짓 모형 추정결과 : 단계적 선택 변수 .................................... 76
<표 8> 부도확률과 환경성과와의 상관계수 ........................................ 7
<표 9> 회귀분석결과 : 상장기업, 환경성과 1 ...................................... 79
<표 10> 회귀분석결과 : 상장기업, 환경성과 2 ..................................... 80
<표 11> 회귀분석결과 : 환경성과 1, 전체 표본기업(주가수익률 제외) ··81
<표 12> 회귀분석결과 : 환경성과 2, 전체 표본기업(주가수익률 제외) ··81
<표 13> DJSGI 구성기업 선발 과정 .................................................... 9
<표 14> 환경위험 평가 ................................................................... 14
요 약

I. 서 론

- 환경보전이 경제발전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세계의 주요 금융회사들은 환경을 주요 경영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주요 금융회사들은 환경위험을 주요 위험원천의 하나로서 파악하고 환경위험관리를 금융회사의 전반적 위험관리에 통합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이는 대부자 책임(lender liability)을 규정하고 있는 선진제국의 환경관련 법안 및 관행에 기인함.
  ○ 미국 CERCLA에는 기업이 환경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사고처리 비용을 대출 금융회사에 부담시킬 수 있는 대부자 책임이 규정되어 있음.

- 한편 최근 들어 은행 등 금융회사가 민간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금융회사 여신 의사결정에서 환경요인에 대한 고려는 기업의 환경관리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선진국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
전에 대한 금융회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적인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환경위험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감독기관에서도 환경위험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촉구됨.

Ⅱ. 금융회사의 환경위험의 의의

1990년대 이후 금융회사는 새로운 형태의 환경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금융회사에 대해 환경책임(environmental liability)을 부과하는 각종 법적 규제에서 기인하였음.
○ 미국에서 금융회사가 직접적인 오염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환경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법안, 즉 CERCLA가 제정되면서 환경위험은 금융회사의 실제적인 위험요소가 되기 시작하였음.

금융회사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위험은 크게 직접위험(direct risk), 간접위험(indirect risk) 및 평판위험(reputational risk)으로 나널 수 있음.

직접위험은 금융회사가 환경오염 시설을 인수하여 소유자 혹은 운영자가 되거나, 혹은 오염회사의 경영에 적·간접적으로 간여하였을 경우, 관련 환경법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파실여부에 관계없이 오염 정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위험을 말함.
○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의 정화비용에 대한 책임을 환경책임이라 하는데 환경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이를 대부자 책임(lender liability)이라 함.

■ 간접위험이란 금융회사가 직접적인 환경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대출기업이 정화비용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담보의 가치가 멀어진다고 혹은 대출기업이 채무 변제능력이 축소됨으로써 나타나는 위험을 의미함.

■ 평판위험(reputational risk)은 정치적 위험이라고도 하며 환경오염의 원인을 발생시킨 기업의 명예실추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을 지칭함.
○ 특히,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파괴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공여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명성 또는 공신력이 추락하는 것을 의미함.

■ 현재 미국과 유럽의 금융회사에서는 환경관련 이슈가 금융회사의 정책 결정에 주요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선진국의 금융회사들은 환경위험관리가 은행 및 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부분의 선진 금융회사들은 환경위험관리(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체제를 도입하고 있음.
Ⅲ. 주요국의 환경책임 및 대부자 책임 현황

- 미국의 CERCLA의 책임원칙은 기본적으로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 그리고 “소급책임(retroactive liability)”으로 대부자 책임(lender liability)을 인정하고 있음.
- CERCLA에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되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safe harbor 조항으로 지칭되는 금융회사의 책임에 관한 조항임.
- 이 같이 대부자 책임이 실질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금융회사의 여신 관행에는 큰 변화가 생겼으며 FDIC와 같은 금융감독기관도 이를 실질적인 위험 요소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음.
-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CERCLA에서와 같이 대부자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다수의 선진국 금융회사들은 대부자 책임의 압력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토양환경보전법에 대부자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더 이상 환경책임에 대해 무관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Ⅳ.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 최근 미국과 유럽의 은행에서는 환경관련 이슈가 은행의 정책 결정에 주요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임.
○ 이를 위해 대부분의 선진 은행들은 금융회사 차원에서 환경위험관리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 주요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상업은행들은 자체 환경 기준을 여신전략 및 신용평가에 통합시키고 있음.

■ 한편, 주요 국제기구 및 금융감독기구에서는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UNEP 금융회사 이니셔티브 (UNEP Financial Institutions Initiative)는 UNEP이 초기에는 교육 및 정보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금융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산업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환경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발표되었음.
○ 미국의 FDIC는 CERCLA의 대부자 책임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자 1993년 은행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은행들에 대해 환경위험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점명하고 환경위험 프로그램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음.
○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Federal Reserve)도 1995년에 환경위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이 지침은 은행들이 환경책임에 대한 안전장치의 확보 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국내에서는 직접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환경위험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따라서 환경위험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에서 환경위험관리의 첫 단계로서 금융감독당국은 물론 금융회사들도 환경위험을 위험, 특히 신용위험(credit risk)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대출의사결정의 한 요소로 공식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UNEP FII statement에 조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기초하여 적절한 금융회사의 환경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UNEP FII statement에 조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기초하여 적절한 금융회사의 환경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은행은 국내법 및 관행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환경정책을 자발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환경위험관리 체제를 갖추어야 함.

Ⅴ. 환경성과와 재무성과의 관계 분석

세계 주요국에서의 분석에 의하면 그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환경성과와 재무성과는 양(+)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두 변수 사이에 뚜렷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음.
조사결과, 2003년에 환경성과와 ROA 및 ROE의 상관계수는 모두 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환경성과와 ROA의 상관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표본기업의 부도확률을 추정한 뒤 이 확률과 환경성과의 상관계계를 분석한 결과, 환경성과와 부도확률은 음의 상관계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환경성과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부도확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함.

환경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그 피해는 막대하나,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는 점과 여전히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관행은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반영하여 국내 금융회사도 이제부터라도 환경 위험관리에 관심을 갖고 최소한의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VI. 환경관련 금융상품

환경 관련 이슈는 이제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금융회사에 위협 요소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유럽의 금융회사들은 이를 기회로 인식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환경과 관련된 새로운 상품을 고안하였는데 이는 환경 보전과 관련된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환경관련 사업에 보다 쉽게 자본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임.
○ 금융회사들은 환경과 관련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지급결제, 예금 및 투자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환경대출(environmental loan)과 같은 상품을 도입하기도 하였음.

환경보전이 금융부문에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곳이 자본시장임.
○ 에코 펀드(eco fund)는 넓게는 지속가능성장의 개념에 근거한 투자펀드로서, 전통적인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에 대한 배려를 평가에 가산하여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는 펀드를 지칭함.
○ 지속가능성 투자는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환경성, 경제성 및 사회성의 삼면(tripple bottom line)을 고려하고 있음.
○ 환경관련 파생금융상품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산 마련 및 지속가능 기업에 대한 투자펀드의 조성 등의 목적에서 DJSGI(Dow Jones Sustainability Group Index)와 FTSE4Good Index 등 지속가능성을 근거로 하는 지수를 개발되었음.

Ⅶ.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환경위험 관리 도입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명문화된 환경책임규정이 없으며 선진국에서와 같이 환경위험관리에 대한 요구도 크
지 않은 편이며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환경책임을 위험의 원천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는 금융회사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명시적인 대부자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환경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환경위험관리가 필요함.

환경위험관리의 첫 번째 단계로 우선 환경위험정책(환경정책) 또는 환경위험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환경정책이 선진국의 정책처럼 엄격할 필요는 없으나 환경정책에는 실사, 교육훈련,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매년 환경보고서(environmental report) 또는 지속가능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를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함.
Ⅰ. 서 론

금융회사, 특히 은행은 전통적으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중개자(intermediary)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금융회사의 주요 역할은 수요자의 자금상환능력과 관련된 신용위험 및 공급자의 자금투출요구와 관련된 유동성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시장위험이 금융회사의 성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였다. 또한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도 점차 복잡해졌다. 1980년대 들어 금융 증권화의 진전으로 직접금융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전통적인 업무였던 여신의 비중이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위험의 관리가 금융회사의 주요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환경보전이 경제발전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세계의 주요 금융회사들은 환경을 주요 경영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 금융회사들은 환경위험을 주요 위험관리의 하나로서 파악하고 환경위험관리를 금융회사의 전반적 위험관리에 통합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환경책임(environmental liability), 나아가 대부자 책임(lender liability)을 규정하고 있는 선진제국의 환경관련 법안 및 관행에 기인한다. 미국의 환경법 가운데 하나인 CERCL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에는 기업이 환경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사고처리 비용을 대출 금융회사에 부담시킬 수 있는 대부자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영국의 환경법(EPA 90)과 독일의 환경법(UmweltHG)에는 대부자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들 국가의 금융회사들은 사실상 이에 준하는

최근 들어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가 민간부문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가능성이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기업 활동의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요소가 금융회사의 여신결정 과정에 유기적으로 연관된다면 환경의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초가 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환경요인에 대한 고려가 기업의 환경관리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선진국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금융회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역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대출기업의 환경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적절한 환경관리를 여신행위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등 금융회사가 대출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상업적 대부자(commercial lender)로서의 역할이다. 이는 앞서 말한 바 있는 대부자 책임과 관련 있는 것으로 금융회사에 대부자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감사와 금융회사에 위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회사에 대한 환경책임의 부과가 경제적 효과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받고 있다.  


둘째는 보다 적극적인 측면으로 환경성과가 높은 기업에 대출우대를 해준다든가 혹은 환경우량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등을 운영하여 수익가치를 극대화하는 측면으로 은행의 투자자로서의 역할이다. 전자는 규제환경에 대한 수동적 접근이라 할 수 있고, 후자는 법규정과 관련 없이 환경적으로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이다.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가 일차적으로 관심을 두는 측면은 역시 전자일 것이다. 대출위험의 최소화는 현재의 법환경 속에서 일 수 있는 책임의 소재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절한 예측가능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후자는 뮤추얼 펀드나 연금 펀드와 같은 금융회사가 주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

금융회사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법인적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환경오염에 대한 명백하고도 공정한 책임원칙이 없다면 은행 혹은 대출기업들은 이러한 법적 책임에 대한 미비 때문에 환경위험을 설계적인 위험으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은행경영 및 대출관행을 바꾸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환경책임을 부담하게 하거나 또는 사회적 압력에 의해 환경위험을 주요 위험 원천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적인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은행에서는 환경위험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감독기관에서도 환경위험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즉, 일부 금융회사들이 대출의사결정에서 환경을 고려하고 있으며 자산건전성 분류에서는 환경위험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자산의 건전성 분류에 Forward-looking Criteria (FLC)를 도입하였는데 FLC에 의하면 자산건전성은 채무상환 능력에 의해 평가된다. 자산건전성 분류과정에서 거래처의 신용등급은 일
반적으로 10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이 때 고려되는 요소는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및 재무위험 등이며 환경위험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되는 등 환경관련 법들이 강화되고 있으며, 여전 기업 또는 투자 대상 기업의 환경사고로 인해 금융회사의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환경위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위험의 개념에 대해 소개한 후, 우리나라에서 환경위험에 대해 평가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대부자 책임에 대해 살펴본다. 한편, 아직까지는 실제적인 환경위험이 비록 심각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금융회사도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환경위험에 대한 관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환경위험 관리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II장에서는 환경위험과 대부자 책임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제III장에서는 주요국의 환경책임 현황과 우리나라에서의 대부자 책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다. 제IV장에서는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시스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제V장에서는 환경성과와 기업의 재무성과 및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제VI장에서는 환경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선진국의 환경관리 금융상품에 대해 조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II장에서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도입 방향을 제시한다.
Ⅱ. 금융회사의 환경위험의 의의

1. 환경위험의 개요

환경위험(environmental risk)은 다른 위험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 특유한 위험은 아니며, 금융회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이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위험이다. 그러나 환경위험이 기업경영에서 경험하는 위험의 한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환경위험은 경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오히려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와 비정부단체(NGO)들은 기업이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환경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기업에 대해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환경위험은 기업간 거래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특히, 기업의 인수·합병에서 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환경실사(due diligence)는 기업의 인수·합병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되었으며, 환경오염 정도가 인수 및 합병 가격 산정에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환경위험을 기업경영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위험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환경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환경위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위험이 특히 문제가 되는 분야는 대기오염, 토양오염, 저하수오염 등 수질오염 그리고 해양오염 등인데, 이는 업종,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다음 표에서 보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도입 방안

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산업시설은 사무실 용도의 부지보다 훨씬 큰 환경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부지 사용의 단계에 따라서도 환경위험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 같은 면에서 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환경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잠재적인 위험은 다른 업종에 비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금융회사는 새로운 형태의 환경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금융회사에 대해 환경책임(environmental liability)을 부과하는 각종 법적 규제에서 기인하였다. 즉, 금융회사가 직접적인 오염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환경책임을 부담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마련되면서 환경위험은 금융회사의 실제적인 위험요소가 되기 시작하였다.

<표 1> 부문별 환경위험

<table>
<thead>
<tr>
<th>용도</th>
<th>산업·연구소 부지</th>
<th>상업·다용도 부지</th>
<th>미개발된 도시부지</th>
<th>미개발된 시골부지</th>
<th>사무실 부지</th>
</tr>
</thead>
<tbody>
<tr>
<td>구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임대차 계약</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처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임대계약만료</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임대계약연장</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부지 위험도
위험도: ● 高 ○ 中 ○ 低
환경책임은 환경위험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환경위험이 곧바로 환경책임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환경책임은 법적 의무로서 환경위험이 가시화된 것이다. 환경책임이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 과거 및 현재의 행위 때문에 지게 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환경법 준수책임, 공법상 정화책임, 벌금, 민사적 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미국), 자연자원 배상책임(미국) 등이 있다. 환경책임은 환경위험보다 좀은 개념이며 기업 또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환경위험의 최소화보다는 환경책임의 최소화가 우선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2. 금융회사에서의 환경위험의 분류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노출되는 위험은 크게 경영위험(business risk), 전략위험(strategic risk) 및 재무위험(financial risk)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의 주요대상은 재무위험이다. 재무위험에는 통상적으로 시장위험(market risk), 신용위험(credit risk), 금리위험(interest rate risk), 운영위험(operational risk) 및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판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은 향후 도입 예정인 BISⅡ에서 재무위험을 크게 신용위험, 시장위험 및 운영위험(operational risk)으로 분류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논의하는 환경위험은 넓은 의미에서는 금융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무위험이 한 범주로 파악할 수 있다. BISⅡ에서는 환경위험을 명시적인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따라 환경위험을 신용위험 또는 운영위험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도입 방안

Case(1999)에 의하면 금융회사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위험은 크게 직접위험\(^{(direct risk)}\), 간접위험\(^{(indirect risk)}\) 및 평판위험\(^{(reputational risk)}\)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위험과 간접위험을 하나로 묶어 법률적 위험\(^{(legal risk)}\)으로 지칭하기도 하며 평판위험을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이라 하기도 한다. 법률적 위험은 금융회사가 환경관련 법규에 따라 오염 정화비용을 직접적으로 부담하거나 혹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법률적 위험 가운데 직접위험이 금융회사가 환경오염 시설을 인수하여 소유자 혹은 운영자가 되거나 혹은 오염회사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간여하였을 경우, 관련 환경법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과실없이 오염 정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위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의 정화비용에 대한 책임을 환경책임\(^{(environmental liability)}\)이라 하는데 환경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이를 대부자 책임\(^{(lender liability)}\)이라 한다.\(^{2)}\) 금융회사가 대출기업의 환경오염 정화비용까지 부담하는 대부자 책임은 1990년대 미국에서 새로이 나타난 것으로 금융회사에 노출되는 환경위험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이다.\(^{3)}\)

간접위험이란 금융회사가 직접적인 환경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오염의 발생시킨 대출기업이 정화비용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담보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혹은 대출기업이 채무 변제능력이 축소됨으로써 나타나는 위험을 의미한다. 이는 금융회사가 전통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신용위험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신용위험은 금융회사의 여신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위험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인한 위험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채무자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대출의 가치하락도 포함된다.

\(^{2)}\) 대부자 책임은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금융회사의 여신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위험이다.

\(^{3)}\) 대부자 책임의 발생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한다.
다. 만일 대출기업이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면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 이 있으며 이는 곧 대출의 가치 하락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이 경우 대출기업의 신용위험은 커지게 된다. 나아가 대출기업은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기업의 미래 수익력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미래 수익력의 위축은 곧바로 채무상환능력의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간접위험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위축시키는 다른 일반적 요인과 크게 다를 것이 없으며 신용위험의 한 요소로서 간주할 수 있다. 간접위험이 광범위하게는 법적 위험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법률적 규제와는 별도의 순수한 경제적 의미에서 채무위험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법적 위험 가운데 직접위험은 미국과 같이 대부자 책임(lender liability)의 원칙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된 곳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부자 책임이란 대출기업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우, 그 정화비용을 대부자, 즉 금융회사가 책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은 대출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직접위험은 금융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다른 위험과는 달리 그 상한을 추정하기 어려운 위험이다. 그러나 대부자 책임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책임으로서 대부자 책임을 법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서는 대부자에게 환경책임을 부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주요한 위험의 원천으로 인식되지 못했다. 즉,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직접위험의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규정이 없어 그 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환경관련 법률에서 대부자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나라가 늘어나고 또한 명시적 규정은 없더라도 암묵적으로 대부자 책임을 부과될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금융회사들은 환경위험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해 아직까지
간접위험과 직접위험이 모두 명확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금융 회사가 환경을 진지한 경영 요소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지연시켜 왔던 원인 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위험은 평판위험(reputational risk)이라고도 하며 환경오염의 원인 을 발생시킨 기업의 명예실추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을 지칭한다. 특히, 금융 회사의 경우에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파괴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공여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명성 또는 공신력이 추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직접위험 및 간접위험과는 달리 추상적 형태의 위험이다. 즉, 직접위험과 간접위험은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계량화하여 측정할 수 있으나 평판위험은 계량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평판위험은 일반대중의 환경의식이 비교적 높은 사회에서 현저히 나타난다. 금융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영을 영위하는 조직이라는 면에서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최근 지속가능 성장(sustainable growth) 및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적인 요소인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과 유럽의 금융회사에서는 환경관련 이슈가 금융회사의 정책 결정에 주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금융회사들은 환경위험관리가 은행 및 차 입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부분의 선진 금융회사들은 환경위험관리(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3. 금융회사에서의 환경위험의 내용

1) 간접위험

가. 차입기업의 상환능력

간접위험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차입기업의 환경위험 노출로 인한 신용위험의 확대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환경적 측면에 의해 차입기업의 상환능력이 악화되어 신용위험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살펴본다. 환경적 측면에서 차입기업의 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정부의 요구 및 규제 변화
□ 시장환경의 변화
□ 외부 환경 조건의 변화
□ 사적책임(private liability)
□ 정부 제재
□ 형사 소추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측면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생산 설비나 생산품의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 감가상각을 가속화시키고 설비의 교체를 조기화해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만일 기업의 재무상태가 관련된 지출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자금조달 및 채무상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환경과 관련되어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는 미래 상황을 예상하는 것 이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토양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도입 방안

오염에 대해서는 미래 발생 가능한 오염도 중요하나 과거에 알려지지 않은 토양오염이 있을 수 있는가도 중요한 요소이다. 마지막 세 가지 측면은 차입자의 환경위험에 대한 법률적 문제로서 금융회사를 재무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1) 정부의 요구 및 규제 변화

사업을 위해 기업을 설립하거나, 확장 또는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변화된 정부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정부의 인가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존의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양쪽 모두 심각하게 그 기업의 존속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금융회사는 기업이 인허가를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가, 실제로 그 회사가 필요한 인허가를 획득했는가, 과거의 문제와 관련 허가를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에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해 항상 검증하여야 한다. 컨설팅 기관인 Moret Ernst & Young의 1998년 조사에 의하면 네덜란드의 경우,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필요한 인허가를 부적절 또는 전면적으로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금융회사로서는 정부가 규제를 실행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환경위험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과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의지가 실제로 금융회사에 손실을 유발시킬 정도로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기업은 정부의 규제를 충족시키는 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금융회사는 큰 손실 없이 신용공여를 서서히 축소하거나 나갈 수 있다. 만약 기업이 환경 허가를 얻거나 관련된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면 이러한 투자가
중분히 수익성이 있는지, 또는 기업이 그러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금융회사는 수익성 있는 투자안에 대해서만 자금을 공급한다. 이론적으로 토양 정화나 또는 다른 형태의 오염 정화는 그 자체만으로 수익성 있는 투자가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오염방지를 위한 예방적 환경경영 조치 또는 투자가 환경과세(environmental levy)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면 이러한 투자는 적어도 이론적인 면에서는 적합하다. 오염에 관한 세금은 앞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미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세금부담을 보다 확대시키는 소위 세금 시스템의 녹색화(greening of tax system)를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쿠토 의정서(Kyoto Protocol)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따라서,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이산화탄소 전략에 의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요약하면, 문제가 되는 점은 차입자가 이러한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거나 예방적인 환경조치를 취하는 재정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 측면에서, 변화하는 정부 정책과 연관된 위험이 모두 위협적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신규 규제는 단지 새로운 상황에만 적용되고 기존의 차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규제들이 기존 차입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문제 차입자로부터 대출을 환수하거나 차입자로 하여금 새로운 규제를 충족시키게 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미래에도 항상 지속되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환경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법률사항이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향후, 환경위협 노출은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금융회사도 문제 차입자를 점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시장 조건

투자자의사결정에 관련된 수익성 및 위험에 대한 정부의 영향 외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요소는 시장의 자율적인 규제이다. 예를 들면, 경쟁기업이 보다 더 환경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생산품을 공급한다면, 자체적으로 그러한 생산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차입자는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경쟁기업과는 관계없이 소비자의 소비 패턴의 변화에 의해 서도 발생될 수 있다. 만일 차입자가 원료 공급자인 경우, 소비자 즉, 구매자가 환경적으로 더 친화적인 상품이나 생산 공정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매출축소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차입자의 상환능력은 심각하게 축소될 수 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또한 환경 문제의 발생으로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우병 파동시 광우병과 관련 없는 국가에서도 육류 소비가 크게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광우병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신뢰가 훼손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농업분야에 대한 여신 비중이 큰 벨기에의 KBC은행은 벨기에에서 발생하였던 다이옥신 사료 문제와 관련해서 대략 4,400백만 유로에 달하는 충당금을 설정하였다.

(3) 외부의 환경 조건

기업 외부의 조건과 관련된 환경위험 가운데 기업의 존속에 심각한 영향

---

4) 예를 들어, 필립스는 점점 원료공급자가 얼마나 그들의 환경 목표에 잘 부합되는가에 근거하여 공급업자를 선발하고 있다.
5) 가축 사료에 다이옥신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관련 제품의 소비가 크게 감소하였다.
II. 금융회사의 환경위험의 의의

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에 대한 좋은 사례가 최근 점점 심해지고 있는 온실화 때문에 발생하게 될 기후변화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미국의 농업 지역은 사막화 될 수 있고, 이들 지역에 위치한 농가들은 파산에 직면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열대 지방의 고급 호텔 체인망에 대해서도 유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기후 문제와 관련이 없는 외부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 차입자의 상환 능력이 위축되는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물고기 낚이로 인한 수산업자의 파산이나 특정할 수 없는 제삼자에 의해 발생된 토양오염과 지표수 오염에 의해 농업 및 원예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이다.

이러한 상황들에서, 외부적인 환경 문제는 추가비용을 전가할 수 없는 기업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파산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환경위험은 해당 기업의 내부에서 기원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해당 기업의 환경위험에 포함되며, 따라서 금융회사의 신용위험에 직결된다.

(4) 사적 책임(private liability)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적 환경 책임(private environmental liability)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일부 국가에서의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의 도입으로 차입자가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은 보다 확대되었다. 기업이 환경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우발적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기업은 환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기업의 환경책임에 의한 위험을 파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러한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금융회사는 또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과 같은 엄격 책임의 확산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6) 유사한 사례로 2005년 동남아의 대규모 지진해일에 따른 관광산업의 피해를 들 수 있다.
품 내에 포함된 어떤 물질을 처리하거나 혹은 그 물질을 폐기물로서 제거하는 기업은 생산 과정상의 다른 장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위험에 대해 전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형태의 차입자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생산품으로부터 야기된 환경 피해 배상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여신의사결정에서 해당 기업의 과거 경영활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정부 제재

차입기업이 필요한 인허가를 획득하지 않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정부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과태료(default fine)는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재이다. 과태료는 정부가 기업이 필요한 환경 조치를 취하게 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또는 필요한 환경조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면, 즉, 과태료로 정부가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 정부는 기업의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제재이며 기업과 금융회사 모두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차입기업에 의해 유발된 토양오염이 정부에 의해 처리된다면, 정부는 이 기업에 대해 청구권을 갖는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스스로 토양 정화를 계획할 수 없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토양 정화를 위해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6) 형사 소추

기업경영자가 만일 환경피해를 발생시킨다면, 기업경영자는 형사소추에 직면할 수 있다. 여기에는 벌금, 구금 또는 영업 정지가 수반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기업이 벌금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정지로 인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나. 차입 고객의 담보물

금융회사에 저당 잡힌 담보물은 환경적 측면에 의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차입자의 대차대조표상에 기록된 생산 설비는 실제로 환경적 요인 때문에 가치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지만,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생산설비의 실제 매각 가격은 보잘 것 없을 수도 있다.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가치는 토양 오염이 있거나 석면 사용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음(negative)이 될 수도 있다. 종종 단기부채에 대한 담보로 저당잡힌 재고의 경우, 만일 그 품목이 환경문제와 관련이 있어 소비자들이 더 이상 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가치는 하락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담보물의 가치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담보물의 매각에 대해서는 영미법과 대륙법 체계 사이에 주요한 차이가 있다. 저당권은 의무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물로서 등록된 재산(토지 또는 건물)을 팔 수 있는 권리이다. 만일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저당권은 매각될 수 있다. 대륙법 체계하에서 금융회사는 이 권리에 대한 법률적 소유자가 절대 될 수 없다. 그러나 영미법 체계하에서는 담보물의 값을 갖을 권리가 상실(유질처분)된 후에는 권리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본질적으로 금융회사는 토양오염이 토양정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 소유주로써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체계하에서는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오히려 추가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7)

7) 이것이 반드시 대부자 책임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환경위험으로 인해 담보물의 가치가 크게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는 2차적인 담보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담보물의 예로는 주식, 외상매출금 및 지급보증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회수에서 금융회사의 위치는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된다. 토양오염의 결과로 그 가치가 음(negative)인 토지가 담보인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파산시 해당 담보물을 취득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경우, 금융회사는 다른 채무자와 동일한 변제 순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금융회사는 다른 형태의 보상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신용한도의 축소, 할증금리 부과, 건전한 재무상태 유지 요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직접위험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직접위험의 원천은 두 가지로 인식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차입자의 담보를 인수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차입기업의 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환경 쇠퇴가 발생한 상황에서 위 상황이 인정된다면, 금융회사는 정부와 제삼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야 할 수도 있다. 금융회사에 대해 환경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된다면 금융회사는 그러한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은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후생에 최적이 되는 오염수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금융회사의 문제는 언제 그러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러한 위험의 가치가 자금공급 규모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즉, 금융회사는 대출금보다도 큰 규모의

8) 이것이 바로 대부자 책임 (lender liability)이다.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대출로 말미암아 금융회사가 10억원에 해당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대출규모와 손실규모 사이의 불확실한 관계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다른 위험과는 달리 이러한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는 금융회사가 위험 노출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금융회사가 환경적으로 민감한 산업분야에 대한 노출, 즉 대출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980년에 미국에서는 사법부가 은행이 자금을 제공한 기업의 경영상 특징한 상황을 유발한다면 해당 금융회사가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법안이 마련되었다. 이 법안이 바로 CERCLA로서 수퍼펀드 법(Superfund Act)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9) 수퍼펀드는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지연된 처리로 인해 오염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투입되는 자금을 말한다. 즉,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책임당사자를 확정짓기 전에 수퍼펀드를 투입하여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정화에 소요된 비용은 오염자 지불 원칙에 따라 오염책임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이 법률 제정은 토양 정화에 대해 확실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법률에서의 환경피해에 대해 엄격 책임 외에도,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 소급책임(retrospective liability) 등 강력한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CERCLA의 제정 이후, 1980년대 후반에 많은 법률적인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1991년의 Fleet Factors Corporation 판결은 금융업계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은행이 이 기업의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행이 여신고객인 이 기업의 재무관리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the capacity to influence)”에 있는

9) CERCLA에 대해서는 제Ⅲ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것으로 해석되어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 은행은 CERCLA에 있는 “담보 채권자의 면제” 조항으로 직접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법부는 면제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이 위험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판례는 금융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초반 미국은행연합회 (American Bankers Association)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모든 상업은행 중에 88%가 대부자 책임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정책을 수정했고, 63%는 발생 가능한 대부자 책임 문제로 대출신청을 거절하였고, 17%는 환경의 직접적인 위험을 우려하여 담보 자산을 포기하였고, 14%는 담보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정화 비용으로 손해를 보았으며, 46%는 화학공업과 농업부분과 같은 매우 환경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대해 여신 공여를 중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은행은 특히 소규모 은행이었는데, 일부 소규모 은행이 대부자 책임으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것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환경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한 자금조달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분명히 법률 제정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이다. 여신을 중지하는 조치 외에 미국의 은행들은 차별화된 금리 적용, 만기 축소 등의 대책을 사용하였으며 이후 환경실사(environmental due diligence)를 도입하고 환경감사시스템 (environmental audit system)을 구축하였다. 이는 신용확보 비용을 상승시켰으며 상대적으로 이러한 비용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였다.

1992년과 1995년에 미국에서는 은행의 직접적인 책임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은행에 대한 과도한 직접책임의 축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96년 9월 제정된 The Asset Conservation, Lender Liability and Deposit Insurance Protection Act에 의해서이다. 이 법안에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은행이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이후 미국 은행은 차입기업의 환경과 관련된 활동에서 잠재적인 아닌 실질적인 개입을 한 경우에만 직접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률안의 조문과 해석 그리고 실제적인 시행 간에 차이점이 여전히 존재하며, 은행은 도시 지역에서의 재개발사업(brownfield redevelopment)과 같은 분야에 대한 여신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심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도시 재개발은 경제적으로나 생태적,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측면이 큰 사업이다. 따라서, 도시 재개발에 대한 은행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수퍼펀드 지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해 1990년대말 PPA(Prospective Purchasing Agreement)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PPA하에서 미국 EPA는 매수자가 현재 오염된 토양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원하기로 동의한다면, 부지의 매수자에 대해 장래 수퍼펀드 비용 회수를 철회하는 데 동의하도록 되어 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오염된 토지에 대해 금융회사의 환경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안이 제시되었다. 물론 금융회사는 미국의 CERCLA의 부정적 영향을 거론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대부자 책임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1995년에 영국과 네덜란드에 환경책임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은행회사의 반대 등으로 결국 대부자 책임은 제외되었다. 법률적 조문에 대부자 책임이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판례에 의해서 대부자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0) 수퍼펀드 지역은 수퍼펀드에 의해 오염이 정화된 지역이다. 오염이 정화되었다고는 하나 추가적인 오염이 밝혀질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정화에 대한 소급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수퍼펀드 지역 개발에 참여할 유인이 없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도입 방안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금융회사들은 법률적으로는 대부자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 있으나, 금융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직접환경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00년 추후 EU는 10여년간의 준비끝에 환경피해와 관련된 책임 문제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였다.11) EU 백서는 환경책임을 CERCLA에서와 같이 규정해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으나 CERCLA와는 달리 완전한 소급 책임을 가정하지는 않았다. 더욱이 백서는 환경 피해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활동을 통해 자가 책임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서술하여 금융회사들이 차입기업의 영업활동에 직접 책임이 없다면 환경책임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백서에서는 CERCLA에 포함된 토양오염에 부가하여 생태적 피해 (ecological damage)도 책임 제도에 포함시킬 것을 지지하고 있다.

요약하면 대부자 책임은 여전히 환경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의 경영정책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더욱이 EU가 금융회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가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 에 금융회사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 있다. 즉, 유럽의 금융회사들은 대부자 책임의 도입을 반대하여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저지하였으나 금융회사가 환경피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3) 평판 위험(reputational risk)

금융회사의 이미지 또는 평판(reputation)이 손상될 위험은 채무불이행 및 대부자책임과 관련된 환경위험과 더불어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의사결정에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게 한다. 금융회사는 환경 위험이 대출거래뿐만 아니라 이미지 요소 모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위험 요소로서 평판은 금융용어로 평가하기 어렵다. 금융회사 평판에 대한 손상은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며 기존 고객이 이탈하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은 소매금융 업무, 법인영업, 투자은행과 자산운용 업무 등 금융회사 업무 영역 전체에 대해 확장될 수 있다. 다른 분야의 환경위험과는 대조적으로 평판 위험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개별적인 대출이나 투자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전체적인 대출 포트폴리오와 운용중인 펀드 등 모든 다른 활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평판위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통상 평판은 훼손할 가능성이 약간만 있더라도 해당 프로젝트에 관여하거나 여신을 공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판에 대한 위험은 일반적으로 도로, 철도 및 댐 등과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같은 신기술 적용 사업,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의 거래에서 보다 크게 나타난다. 특히, 평판에 대한 위험은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s)들은 이 측면에서 금융회사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NGO가 지속적으로 기업을 감시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보다 훼손될 가능성이 약간만 있더라도 해당 프로젝트에 관여하거나 여신을 공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OECD는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또는 UNEP 이니셔티브와 같은 환경보전을 위한 금융회사 협약에 서명한 금융회사가 이들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개발도상국 투자에 대한 OECD 지침을 알고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도입 방안

언하였다.
상당수의 금융회사들은 이미 신용공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NGO 및 고객의 압력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998년 ABN AMRO는 서부 파푸아뉴기니에서 극심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광와 금광을 운영하는 기업에 자금공여 문제로 NGO의 표적이 되었다.

☐ AIDEEnvironment라는 기구의 2000년 보고서에 의하면 HSBC, UBS, BNP, Citigroup, Commerzbank 및 Bank of Taiwan과 같은 금융회사들은 인도네시아의 야자수 재배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여한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들 금융회사는 Funding Forest Destruction이라고 불리우는 환경캠페인의 표적이 되었다.

☐ 2000년 일부 NGO는 중국에서 삼협댐(Three Gorges Dam)을 위한 중국정부의 국제발행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Morgan Stanley Dean Witter와 Credit Suisse Group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캠페인이 광범위한 미디어의 관심 대상이 되거나 대중에 의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금융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철저히 예방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의 환경 규약(environmental code)이 엄격히 준수될 때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단순한 감독을 실시하거나, 환경 관련 허가를 취득하
II. 금융회사의 환경위험의 의의 25

는 등의 소극적인 조치는 충분치 않다.
평판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 수단이 환경영향평가이다(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는 전세계에 걸쳐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다. EIA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스크리닝, 장소 선택, 기초 자료, 환경 영향과 위험 평가, 대안에 대한 분석 및 환경피해 완화 계획을 수반한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기초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수행기관 또는 정부 등을 대신하여 전문 컨설팅업체에 의해 작성된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상에 일반 여론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한편, 금융회사들은 환경과 관련된 평판위험에 대한 통제 조치의 한 방편으로 특정 산업의 환경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과 보고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의 금융회사 컨소시움인 Forge 그룹(Forge Group)은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및 보고 지침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금융 및 법률 용어로 외부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각 산업에 대한 평판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다. 이 지침은 핵심 금융산업에서의 주요 환경이슈들을 정리해 놓은 후, 환경위험을 회피하고 규제는 충족시키며 사업기회를 실현시킬 수 있는 관리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III. 주요국의 환경책임 및 대부자 책임 현황12)

1. 미국

미국에서의 대부자 책임(lender liability)은 환경법의 하나인 CERCLA(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에 규정되어 있다. 제정 초기 CERCLA는 대부자 책임에 대해 매우 엄격히 규정되어 있었으나 수차례에 걸친 개정과 판례에 의해 대체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 현재 대부자 책임은 처음 CERCLA에서 보다 좁은 형태로 정의되어 있다.

1) CERCLA의 내용

Superfund법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CERCLA는 1978년 뉴욕북부에서 발생한 러브 캐널 사건13) 이후 유해화학 폐기물의 토양 오염에 대한 사회적

---
13) 1892년 윌리엄 T. 러브가 뉴욕 북부의 이리히 아나타리오호를 연결하는 지역에 운하를 건설하는 공사를 추진하던 중 경제불황 등의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건설현장에는 길이 1마일, 너비 10야드, 깊이 10~40피트인 러브 캐널이라고 부르는 응당이만 남았는데 1940년대에 들어 한 해화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유독성의 화학물질을 철제 드럼통에 넣어 응당이에 매립하였다. 이 지역 주민들은 피부병과 두통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유산율이 높았다. 특히, 1976년 큰 홍수가 있은 후 가로수와 정원의 꽃이 죽어 갔다. 연못에서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다량 검출되었으며 토양에서도 유독 물질을 포함한 물이 표면으로 스며 나왔다. 뉴욕 주 보건당국에 의해 오염도가 발휘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국 연방환경청은 1978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 지역을 환경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거주하던 주민들에게 즉시 거주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이 지역을 정화하기 위해 1억 달러 이상을 소모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도 이 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고 있다.
Ⅲ. 주요국의 환경책임 및 대부자 책임 현황 27

관심이 높아지면서 1980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1986년 수퍼펀드 개정 및 재승인 법(SARA, 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은 과거의 유해폐기물처리에 의한 토양, 지하수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대책의 실시와 관련이 있는데 이 법안에 의해 정화 조치가 강화되었다.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의 연방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오염 실태를 조사하여 위험의 정도가 심각한 지역을 미리 조성된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정화하도록 하고 정화 비용을 오염 원인자에게 추후 부담시키는 것이다. 수퍼펀드(Superfund)는 오염정화 비용을 위해 석유・화학회사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조성되었는데 그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된 법안으로 1976년 제정된 RCRA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과 유해폐기물 처리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사전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CERCLA는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의 유해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에게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이 취하는 조치는 단기적으로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 오염지역을 정화하는 것이다. CERCLA에는 유해폐기물 오염지역에 관한 정화책임을 지는 잠재적 책임당사자가 매우 넓게 정의되어 있다. 잠재적 책임당사는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오염 토지 및 시설의 현재 소유자와 운영자(current owners and operators)이며, 두 번째는 유해물질 및 오염물질의 배출 당시 해당 토지 및 시설을 소유하였거나 운영했던 자(past owners and operators), 세 번째는 유해물질을 발생시킨 자로서 폐기, 네 번째 처리 또는 운반을 주선한 자(generators or arrangers), 그리고 마지막은 유해물질의 운반을 위탁받고 유해물질을 처리장 및 폐기 장소에 운반한 자(transporters) 등이다. 잠재적 책임당사는 정부가 지출한 오염물질의 제거 및 복구사업
비용, 타인에 의해 발생된 일체의 대응비용, 자연자원에 야기한 피해 및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CERCLA의 책임원칙은 기본적으로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 그리고 “소급책임(retroactive liability)”이다. 다시 말하면 수평적(생산자, 운반자, 처리자 등) 및 수직적(파거 및 현재의 소유자) 책임을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잠재적 책임 당사자들은 원칙적으로 전원이 정화비용 전부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CERCLA는 위급상황, 계약관계가 있는 당사자, 피고용인, 대리인 이외의 제3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 그리고 선량한 구매자 예외조항(innocent purchaser exception)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방어를 허용하고 있다. 선량한 구매자 예외조항은 현재의 소유자 혹은 운영자가 구입시 어느 유해물질이 당해 시설에서 처리되었는지를 알지 못했거나 알만한 이유도 없었다는 것을 확증할 때 예만 가능하다 이는 “모든 적절한 조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책임원칙은 법률적으로 매우 가혹한(Draconian) 것으로 추후 CERCLA 개정에서 논란의 핵심이 된다.

2) CERCLA에서의 금융회사의 환경책임

CERCLA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양도계약 등에 의해 오염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된 경우와 대출기업의 파산 후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해서 당해시설의 소유자로 되는 경우, 또한 담보권 실행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시설의 운영자가 되었을 경우에 책임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항은 금융회사만 아니라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CERCLA에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되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safe harbor
조항으로 지정되는 금융회사의 책임에 관한 조항이다. 이에 의하면 "소유권의 징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의 관리운영에 직접 참여함이 없이 동시설에 대하여 담보권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소유권증서를 보유하는 자(a person who, without participating in the management of a facility, holds indicia of ownership primarily to protect his security interest in the facility)"는 책임당사자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담보채권자는 책임당사자에서 제외되는데 경영참여 및 담보권 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점이 혼란을 야기시킨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CERCLA 제정 이후 금융회사의 책임 여부가 처음으로 다루어진 연방법원 판례는 1985년의 United States v. Mirabile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경영난으로 조업을 정지한 한 도료제조회사의 채권자 중 하나인 American Banker’s Trust가 이회사의 유해폐기물 정화의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아니면 CERCLA 상의 담보권자 예외규정을 원용하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경영참여 여부 판단에, 담보권자가 과연 당해시설에서의 "일상업무(day-to-day operation)"에 관여했는가라는 기준을 도입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은행이 당해시설의 일상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1990년의 United States v. Fleet Factors 판례는 금융회사의 대부자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금융회사가 환경위험을 본격적인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게 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Fleet Factors 사건은 금융회사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금융회사의 경영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 주었다. 이 판결에서는 Mirabile 판례에서의 일상업무 관여 기준을 완화하여 책임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였다. Fleet Factors 사건에서 법원은 금융회사가 유해폐기물에 관한 경영결정 과정에 실제로 관여하고 있는 것도 필요
치 않으며 단지 영향을 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확대 해석하였다. 법원은 본 판결이 금융회사로 하여금 차입자의 환경위험을 대출조건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대출기업의 부적절한 환경관리를 개선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미국연방환경청(EPA)은 Fleet Factors 판결에 따라 금융회사의 여신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경영참여에 대한 규칙, 즉 “대부자 책임규칙(Lender Liability Rule 혹은 Safe Harbor Rule)”을 제정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EPA의 대부자 책임 규칙 제정 권한이 부정됨에 따라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의회는 1996년 자산보전 대부자책임 및 예금보험보호법 (Asset Conservation, Lender Liability and Deposit Insurance Protection Act)을 제정하여 1992년 EPA의 대부자책임 규칙을 실질적으로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대출기업의 일상적 기업운영에 관여하거나 그 사업상의 결정에 세부적 통제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특별히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관여한 경우 등과 같이 차입자의 운영에 상당한 정도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관여를 해야 한다는 등 EPA의 대부자책임규칙의 내용이 대부분 인정되었다.

미국에 있어서의 대부자 환경책임 관련 조항은 장기간에 걸쳐 판례와 법 개정을 통해 정착되었다. 이 같이 대부자 책임이 실질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금융회사의 여신 관행에는 큰 변화가 생겼으며 FDIC와 같은 금융 감독기관도 이를 실질적인 위험 요소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대부자책임에 관한 국제적 동향

CERCLA와 같은 강력한 환경책임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정교하게 대부자책임의 원칙을 정립해왔던 미국과는 달리 유럽의 국가들의 환경법에는 명시적인 대부자 책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유럽의 금융회사들은 1989년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폐기물로 인한 피해에 관한 민사책임지침 (Directive on Civi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Waste)"을 게시로 잠재적 책임가능성을 대비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주요 이슈로 부각된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금융회사 성명문(Statement by Banks on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 체택되고 이를 집행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 금융회사 이니셔티브(UNEP Financial Initiative: UNEP FI)"가 설립되면서 대부자 책임에 노출되어 있던 유럽의 금융회사들의 여신 관행도 점차 미국처럼 바뀌어 갔다. 이러한 여신 관행 또는 경영 관행의 변화에는 NGO 활동의 활성화로 평판위험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

1)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간의 통일된 환경책임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1993년 Green Paper를 간행하여 환경오염피해의 구제 및 복구에 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Green Paper는 오염자책임의 원칙에 바탕을 둔 업계책임 체계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유럽의 금융회사들은 미국의 CERCLA와 같은 입법을 저지하고자 하였고, 환경단체들은 보다...
강화된 대부자 책임을 옹호하였다.


대부자 책임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항은 없다. 금융회사를 명시한 유일한 조항은 금융회사가 운영통제자가 아닌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것은 대출기업의 운영에 직접적인 운영통제를 행사했을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네덜란드

네덜란드 정부는 오염지역의 확인과 복원을 위해 1986년에 토양정화법(Soil Cleanup Act)을 제정하였으며, 1994년 5월 15일에 일부 수정과 추가를 통해 토양보호법(Soil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다. 토양보호법에서는 토양 오염의 관리를 이원화하고 있다. 1987년 1월 이전에 오염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고, 1987년 이후로 일어난 오염에 대해서는 오염원인자가 그 토양의 질을 오염이전의 상태로 복원하여야 한다는 관리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1994년 토양정화법 개정안은 오염자 및 특정 소유자에게 정화책임을 부담
시키는 조항을 도입하였다. 정부기관은 자체정화 실시 후 민사책임법에 의해 그 비용을 오염자(소유자 제외)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1995년의 토양정화에 대한 명령에서는 오염시설의 운영자, 책임자, 혹은 오염토양의 소유자에게도 무과실 정화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소유자중 선의의 매수자에 한해서 정화의 무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당사자들이 위험평가절차 및 토양오염기준 설정 등에 있어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 환경위험의 분산은 대개는 당사자간의 사적 계약에서의 환경특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3) 영국

기업의 환경책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법률은 1995년 환경법(1995 Environmental Act)으로서, 여기에서는 기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처리에 대한 규제 및 처리비용 부담 주체 확정을 위한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토양오염에 관해서는 20여개의 규정이 있는데 이들은 미국의 수퍼펀드법의 원칙을 영국에 도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영국도 엄격책임, 연대책임 및 소급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의 환경책임 원칙은 그 책임 당사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관련자 가운데서 책임이 없는 자가 누구인가를 가려내고 그 후 잔존하는 자 모두를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들 간에 처리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염자가 확정되지 않고 지불능력이 없다면 정화의 책임은 현재 소유자로 전가된다. 1995년 환경법에 따르면 책임관련 당사자는 일정지역 안 혹은 아래의 오염을 “야기(caused)”하거나 “인식하고 허용한(knowingly permitted)” 자로서 오염에 대해 책임이 있게 된다. 특히 “인식하고 허용한”
이라는 용어는 해석 여부에 따라서는 엄격책임이 이전에 비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된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영국법상 단순히 대출 혹은 신용을 제공한 자, 지주회사를 제외한 주주, 보증인 및 증여자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의 책임에 대해서 이들이 오염을 인식하고 허용했을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자세한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 이들이 오염 책임이 있는가 하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될 것이다. 영국은 책임의 정도와 범위에 있어서 대부자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미국보다 덜 엄격하다.

4) 독일

독일에서는 1990년에 환경책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보호법익의 개별적인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다. 둘째는, 잠재적 책임당사자들이 하여금 많은 주의를 기울이나 발생가능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셋째는 무분별한 환경오염적 생산을 방지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소모를 도모한다. 동법은 재산 혹은 신체상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시설물 등의 소유자 혹은 점유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이 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일정한 공정을 갖고 있는 특정시설이지만, 적용되는 책임원리는 미국의 CERCLA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책임이다. 이 법에서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사업자의 이행확보 조치 의무
화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배상책임보험, 연방정부-주정부의 보증 및 신탁금융회사에 의한 보증 및 신탁 등의 배상책임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1998년 제정된 연방토양보전법(Federal Soil Conservation Act)은 환경위험평가 및 정화에 대한 연방자원의 기준이 설정 개가 되었다. 동법의 주요 목적은 오염된 토지를 되도록 실행가능한 상황 하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따라서 브라운필드(brownfield)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오염위험이 있는 모든 버려진 부지의 공식적 등록, 조사 및 위험평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조사비용을 책임당사자로부터 정수할 수 있다. 일에서는 폐쇄된 폐기물처리장 등 과거의 활동에 의해 생긴 오염토지를 알트라스텐(Altrasten)이라 하고 이 토양의 오염책임자로 원인제공자 및 그의 승계인과 부동산소유권자 및 사실상의 지배권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토양복원 책임자가 다수인 경우는 그 정화책임자들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인자책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3.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위험과 대부자책임

우리나라의 환경관계 법령 중 기업활동 및 구조조정과 관련있는 것들은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지하수법, 수도법,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등을 들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지정폐기물의 처리중매점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지 않았을 경우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유발 시설 설치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토양오염방지조치, 토양오염검사의 이행 및 시정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운영자, 오염원인자, 양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도입 방안

수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데, 최근 대법원은 양수인이 양수 당시 토양오염 여부를 알았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오염의 판별과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주체가 매체별로 분산되어 있음이 지적되어 왔고 이를 통합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토양 및 지하수의 관리체계가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지하수에 관한 법률로서 수질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등이 있다. 그러나 각 법이 물의 용도별 품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현실적으로 필요한 오염원인의 규명과 그 복원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 같은 문제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국내법상 기업의 오염행위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구제방법이 미약함을 지적할 수 있다. 설사 불법처리자나 방치책임자를 발견하였어도 그들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제제도, 기금조성, 강제보험가입 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예견가능성, 위법성, 인과관계 등 알아야 할 많은 장애가 있다. 기업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양수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는 민법상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인데 이 경우 토양오염이 하자였는가, 이를 바탕으로 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결정해도 기본적으로 민법 제750조를 원칙으로 환경정책기본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칙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책임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있어서의 무과실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업장 등에서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제한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도 오염원인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묻고 있으나, 정화책임의 책임자 및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원
인자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한 문제를 토양오염에만 한정하고 있으며, 기존 오염에 대한 책임 및 원인자의 자력부족일 경우의 정화문제는 해결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최근 개정법률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몇가지 조항들이 신설되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도 원인자에게 책임 부과, 징수가 가능하나 그 범위 여하에 논란이 있고 오염의 정화사업이 방지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향후 환경규제가 강화되거나 신규규제가 도입될 경우에 대한 법규의 소급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도 아직 충분히 시도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명확한 책임법 등 환경관련 법규의 정비가 요망되고 또한 국제적 수준의 기준, 지침 등의 수립이 절실하다. 원칙적으로 책임법의 도입에 있어 우리나라 여건상 경제발전에 지나치게 저해가 되고 형평의 원리에 어긋하는 조항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강력한 책임법규와 아울러 몇가지 기업의 환경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하겠다. 예컨대 오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부지를 매수할 경우 당해부지가 특정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수기업이 환경정화 노력을 약속할 경우 정부가 세계상 여러가지 감면조치를 해 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조사와 정화조치를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CERCLA와 유사한 “선량한 구매자” 예외규정을 둔다면 가능한가 혹은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정화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환경당국과 협의하여 복원기준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함께 일정한 혜택(예컨대 추가 정화조치의무 면제 등)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1) 토양환경보전법과 환경책임

우리나라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은 1977년의 환경보전법에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환경법의 시초라 할 수 있는 환경보전법은 11장 20조로 되어 있는데 이 법에서 환경오염도의 상시측정 및 환경기준의 설정 특정대책지역의 지정과 사업자에 대한 환경오염방지비용부담제 도입 등 일부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간단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 후 1990년 이 법이 환경매체에 따라 분리되면서 토양오염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일반적으로 규율하였고 농약사용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하여는 농약관리법이 구체적인 규제를 하였다. 그러나 토양오염물질의 계속적인 사용 증가와 폐기물매립지, 유류저장시설인 주유소 및 저유소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이 증대하고 광산폐수와 광산폐기물에 의한 토양오염이 심화되면서 단편적인 규제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이에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여 오염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1996년 1월 6일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 시행되어 본격적인 토양오염지역조사 및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토양환경관리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토양환경보전법이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그동안 토양오염 피해의 배상주체를 단순히 당해 원인자로만 한정함으로써 오염원인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토양오염의 정화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으로 2001년 3월 28일 법률 제6452호로 토양환경보전법개정법률이 마련되었다.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장부지, 광산지역 등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조사·정화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토양오염지역을 조사하게 하고 토지거래시 부지의 토양환
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토양오염조사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토양관리 제도를 강화하였다(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제17조).

그러나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오염책임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2001년 3월 28일에 통과된 개정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첫째, 동법의 입법목적에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명문으로 삼입하였다. 그리고 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고 오염원인자의 범위로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3)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 등으로 명시하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토양오염을 사전에 조사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도인, 양수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등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정하고 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을 명문으로 인정한 것은 토양오염의 사전예방뿐만 아니라 오염토양의 사후적 복구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정화가 필요한 오염의 기준 및 정화기
준도 마련하지 않고 추상적인 정화책임을 묻는 것이 되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법이 담고 있는 원칙은 CERCLA와 마찬가지로 오염을 직접 야기하지 않은 토양오염시설의 현재 소유자도 정화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환경법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토양오염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보다 실험가능한 정화를 위한 정책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단지 오염시설의 현재 소유자 또는 운영자라는 이유만으로 정화책임을 묻는 경우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CERCLA의 시행결과 나타난 브라운필드(brownfield)의 투자기피 등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에서는 현재의 소유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오염시설의 양수인 또는 임대인의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고 토양환경평가의 결과는 그 평가 당시의 토양오염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이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해당토지 및 시설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양수인이 오염시설 또는 오염의 우려를 알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수인을 선의 무과실의 양수인으로 보아 정화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정법은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한국의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조사능력 및 실태가 신뢰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실무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아직 환경현장평가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토양오염도를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양수이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 양수하였으나 후에 다시 토지를 매각할 때 다시 토양환경평가를 한 점
과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견되면 해당 토양오염은 양수인의 소유기간 중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법률에서 전향적으로 규정한 토양오염 전문기관에 대한 규정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장에 맞는 표준지침이 설정되고 토양오염 현장평가 등의 관행들이 널리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국내 환경컨설팅 및 환경위험평가업체들의 이러한 기술 및 경험 축적은 외국의 동종업계 선진기업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2) 우리나라에서의 대부자 책임

과연 국내에서 금융회사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가능할가? 미국과 같은 명확한 대부자 책임 법리가 현재의 우리 법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환경책임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가 차입기업의 환경성과를 대출결정과정에 고려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 국내법원에서 금융회사가 환경정화책임을 진 사례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화선키메탈(주)는 1991년 12월 도산할 때까지 9년간에 걸쳐 비철금속제련 공장을 가동하면서 납 등을 생산하였는데, 부도당시 동 회사의 공장부지에서 엔터스트, 주석2차 슬래그 등 특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었고 1992년 1월에는 동 회사의 공장부지 지하에 다량의 특정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서 인근 상수원이 오염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당시 서울은행은 동 회사에 그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14억원을 대출하여준 상태로 동 회사가 도산하자 약 10 개월간 동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정도 일부 가동하였다. 서울은행은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4차례 유찰되었고 1993년 3월 최저
경락가격의 40% 정도의 가격으로 부동산을 경락 받았다. 이에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서울은행이 이 부동산을 경락받음으로써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책임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1994년 8월 서울은행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은행은 특정폐기물배출자가 아닌 자를 대생으로 내려진 동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구고등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서울은행이 공장부지의 취득 이전에 채권자로서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면서 특정폐기물이 공장부지에 야적, 매립 방치되어 있는 점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사실상의 경영기간 중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폐기물의 일부를 배출하여 공장부지에 야적, 방치하였던 점에 중점을 두고 서울은행의 패소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다.

“원고(서울은행)는 여러 가지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특정폐기물이 야적 또는 매립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경락받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화선 키메탈)의 부도 후 이를 관리하여 오면서 그 종업원들과 협의하여 공장을 일부 가동하고 그 원료에 대한 관리부실로 또다시 폐기물을 발생케 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회사의 승계인 겸 특정폐기물의 직접배출자로서 그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또한 서울은행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원심이 원고가 소외 회사 키메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14억원을 대출한 후 그에 상당하는 소외 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등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호외 회사가 부도나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공장에 납주석 등이 사건 특정폐기물 중 일부가 야적, 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공장용지 등을 경락받았고, 나아가 소외 회사의 부도 후 공장을 관리하여 오면서 종업원들과 협의하
여 공장을 일부 가동하고 원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특정폐기물 중 일부를 배출하여 공장에 야적, 방치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인근 상수원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특정폐기물의 처리를 한 자에 해당하는 취지의 전제 하에, 피고가 위와 같은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특정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화선키메탈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은 토지매수인인 서울은행이 토지매수 이전에 발생하여 부적법하게 처리 또는 방치된 특정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상 특정폐기물 배출자로서 동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할 화선키메탈(주)의 공법상 책임을 승계하였다고 있는가 하는 토지오염과 토지양수인의 법률관계에 대한 판결이지만 동 사건을 대부자 책임의 단초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동 사건에서 법원은 상세한 이유 설명 없이 몇 가지 사실관계를 근거로 서울은행에 공법상 책임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어 뚜렷하게 어떠한 법리가 앞으로의 판례에서 일관적으로 적용될 지는 예상하기 힘든데, 현재의 우리나라 법적 제도 안에서도 금융회사가 환경정화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또한 현재 국내 환경개별법규에서 점차 책임관련 조항들이 정비되고 있으며 앞으로 금융회사의 책임여부가 실질법상으로 곧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토양환경보전법 개정법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여부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유발시설 소유, 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를 책임의 주체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CERCLA에서 대부자 책임면책 조항이 “경영참여”의 해석을 구체화하면서 발견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조항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금융회사를 “운영자”로 해석할 수 있는가가 대부자 책임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현 재, 우리나라는 은행은 위크아웃, 화의, 은행관리 등 법률 또는 관례적 방법에 의해 운영자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물론 이 경우 운영자로 간주할 수 있는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나 미국의 사례를 볼 때 운영자로서 간주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는 금융회사가 더 이상 환경책임에 대해 무관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잠재적인 환경위험을 통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대부자 책임으로 인한 비용은 확률은 낮으나 그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들은 시급히 환경위험을 은행의 심각한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환경을 일단 주요 위험 요소로 인식한다면 이는 환경관련 신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등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1.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필요성

금융회사는 전통적으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은행의 역할은 수요자의 자금상환능력과 관련된 신용위험 및 공급자의 자금인출요구와 관련된 유동성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시장위험이 은행의 성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확대되었으며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도 점차 복잡해졌다. 또한 1980년대의 금융증권화의 진전으로 직접금융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전통적인 은행업무였던 대출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위험의 관리가 은행의 주요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세계의 주요 금융회사들은 환경을 주요 경영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위험을 주요 위험관리의 하나로서 과학하고 환경위험관리를 금융회사의 전반적 위험관리에 통합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환경책임(lender liability)을 규정하고 있는 선진제국의 환경관리 관련법 및 유엔환경계획(UNEP, UN Environmental Plan)의 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 성명문(UNEP Statement on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CERCLA에는 기업이 환경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사고 처리비용을 대출금융회사에 부담시키는 환경책임(lender liability)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FDIC는 금융회사의 환경위험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서를 발표하였다. 즉, CERCLA에 의해 은행이 환경책임을 부담하면서 부실화되는 경우가 발생하자 FDIC는 환경책임으로 인한 은행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3년 환경위험관리 지침(FDIC Guidelines for an Environmental Risk Program)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에 의하면 은행은 환경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위험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환경위험 평가를 위한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 및 환경위험매뉴얼(environmental risk manual)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영국(EPA 90) 및 독일(UmweltHG)도 이에 상응하는 법안을 갖고 있으며 EU도 유사한 지침(Directive on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을 1996년에 발표한 바 있다.

UNEP에서는 1992년 환경보존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금융회사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UNEP Statement를 발표하였는데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가맹하였다. 2001년 현재 가맹 금융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170여 개이며, 유럽 및 북미의 금융회사들뿐 아니라, 태국,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미의 금융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UNEP Statement는 가맹 금융회사들이 나름의 환경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FDIC 및 UNEP의 권고사항에 의거할 때 환경위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은행은 우선 효과적인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을 갖추어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환경위험관리(environmental risk management)를 은행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통합시키며 전사적인 환경경영시스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MS)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환경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첫
제, 환경으로 인한 위험과 환경위험관리에 따른 보상에 대한 정보, 둘째, 정책 선언문(policy statement)의 확보, 셋째, 교육·훈련 및 기관 내외부의 환경전문가 활용 방안, 넷째, 환경실사(environmental due diligence)에 대한 정보, 다섯째, 환경위험의 평가 단계에 대한 명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자산의 처리방식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환경위험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감독기관에서도 환경위험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대출 의사결정 및 자산건전성 분류에 환경위험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자산의 건전성 분류에 Forward-looking Criteria(FLC)를 도입하였는데 FLC에 의하면 자산건전성은 채무상환능력에 의해 평가된다. 자산건전성 분류과정에서 거래처의 신용등급은 일반적으로 5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이 때 고려되는 요소는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및 재무위험 등이며 환경위험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은행에서는 환경관련 이슈가 은행의 정책 결정에 주요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선진국의 은행들은 환경위험관리가 은행 및 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선진 은행들은 금융회사 차원에서 환경위험관리(environmental risk management)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2. 환경위험관리의 기본 전략

주요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상업은행들은 자체 환경기준을 여신전략 및 신용평가에 통합시켰다. 은행이 개발한 환경위험관리시스템은 고객의 환경위험과 은행의 대부자 책임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환경실사의
근거 수립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환경심사에서 잠재적으로 고위험의 원천이 되는 상업 및 산업 여신은 환경 이슈의 정도에 따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세 범주는 대출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기업에 대한 환경 심사의 수준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다.

위험 인식 (risk identification) 및 평가에 대해 내부조사에서 외부 전문가의 이용까지 환경심사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전형적으로 산업분야 또는 해당 장소가 환경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평가가 처음 이루어진다. 만일 판단이 확실치 않다면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 본사 또는 지 역본부 차원에서 보다 상세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요청된다.

<표 2>의 첫 번째 범주에서, 외부 자문은 환경에 대한 우려를 평가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두 번째 범주에서 자문가들은 대상 산업 특유의 위험에 대해 평가할 것을 요청받을 수 있다. 가장 복잡한 세 번째 복잡한 범주에는 석유화학물질과 밀프 및 제지와 같은 산업이 포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사는 차입자의 허용하에 진행되며 차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이는 금융회사가 경영이나 자산에 대한 관리 또는 통제를 수행한다는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평가가 진행됨과 동시에, 상업 또는 산업대출에 대한 고객들은 특별히 마련된 설문지를 완성하여야 한다. 이는 문제가 되는 자산의 현황과 이용 상황을 알아내고 관리가 필요한 환경적 이슈를 찾아내고, 해당 기업의 법규 준수 기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이 담보로 사용되거나 또는 고위험 산업이 대출을 신청할 때, 환경 위험분석은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한 환경처리가 가능한가 또는 문제가 지역
표 2: 신용공여를 위한 위험평가 범주

<table>
<thead>
<tr>
<th>범주 I</th>
<th>범주 II</th>
<th>범주 III</th>
</tr>
</thead>
<tbody>
<tr>
<td>드라이 클리너(저장)</td>
<td>드라이 클리너(시설)</td>
<td>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td>
</tr>
<tr>
<td>변전소</td>
<td>전자공학 산업</td>
<td>비료</td>
</tr>
<tr>
<td>가구와 설치물</td>
<td>가공금속제품</td>
<td>주조</td>
</tr>
<tr>
<td>세탁 및 의복 서비스</td>
<td>농경 산업, 서비스 및 공급</td>
<td>석유 및 가스 제품</td>
</tr>
<tr>
<td>가족과 가족 제품</td>
<td>아연도금산업</td>
<td>삼출주/삼관제/제조제 제조업</td>
</tr>
<tr>
<td>제품 및 나무 제품</td>
<td>수선 차고 (자동차/버스/기차)</td>
<td>석유 정제</td>
</tr>
<tr>
<td>인쇄 및 출판</td>
<td>밑크 제조</td>
<td>젤폴 및 제지 산업</td>
</tr>
<tr>
<td>물/전기 및 유리 제품</td>
<td>야금 산업</td>
<td>자원 재취 산업</td>
</tr>
<tr>
<td>섬유 산업</td>
<td>채광</td>
<td>철강</td>
</tr>
<tr>
<td>종고업</td>
<td>석유 및 가스 탐사</td>
<td>폐기물 처리</td>
</tr>
<tr>
<td></td>
<td>석유 및 가스 산업</td>
<td>목재 보관</td>
</tr>
<tr>
<td></td>
<td>페인트/칠기 제조</td>
<td></td>
</tr>
<tr>
<td></td>
<td>석유 적하소/터미널</td>
<td></td>
</tr>
<tr>
<td></td>
<td>의약 산업</td>
<td></td>
</tr>
<tr>
<td></td>
<td>수송관로 (천연가스 제외)</td>
<td></td>
</tr>
<tr>
<td></td>
<td>수송관로 (천연가스)</td>
<td></td>
</tr>
<tr>
<td></td>
<td>도급 회사</td>
<td></td>
</tr>
<tr>
<td></td>
<td>용매, 배터리, 사용한 기름이나 액체 폐기물을 처리하는 제생 공장</td>
<td></td>
</tr>
<tr>
<td></td>
<td>쓰레기 및 폐기물 산업</td>
<td></td>
</tr>
<tr>
<td></td>
<td>서비스 기지조선소</td>
<td></td>
</tr>
<tr>
<td></td>
<td>조선소</td>
<td></td>
</tr>
<tr>
<td></td>
<td>가족가공</td>
<td></td>
</tr>
<tr>
<td></td>
<td>교통 산업</td>
<td></td>
</tr>
</tbody>
</table>
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용인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오염절감설비를 위한 자본지출이나 복구조치가 대출의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나아가, 대출심사자는 대출에 대한 보험을 통해 위험을 전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3. 관련 기관의 환경위험관리 지침

1) 유엔환경계획(UNEP) 금융회사 이니셔티브

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UNEP 금융회사 이니셔티브(UNEP FII, UNEP Financial Institutions Initiative)는 은행, 보험 그리고 투자기관들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환경보호에 공헌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FII는 환경과 조화되는 경제발전을 장려하는 UNEP의 1972년 이니셔티브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1992년 지구정상회담(1992 Rio Earth Summit)은 지속가능발전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FII는 이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제정되었다. UNEP이 금융회사 이니셔티브를 내놓았을 때, 성명문에 조인한 은행은 20여개에 불과하였으나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는 170개이 넘는 금융회사들이 이니셔티브에 조인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서명한 성명문은 1997년 수정되었는데, 원래의 공약이나 목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992년 이후 나타난 은행(banking) 분야의 변화를 보완하였다.

UNEP의 보험산업 이니셔티브(III, UNEP Insurance Industry Initiative)는 1995년 이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보험산업의 경영 방식과 관심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은행사업의 이니셔티브와는 구분되는데 85개의 보험회사 및 재보험업자들은 III 성명문에 서명하였다. FII와 III는 서로 독립적으로 계속 유지되지만, UNEP은 연간금융회사회의에 두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다룬다.14)

금융 이니셔티브의 주된 목적은 UNEP이 초기에는 교육 및 정보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금융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산업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었다. 은행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한다면, UNEP은 이를 지원하며 정보를 제공받는 은행들을 중심으로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목적은 환경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다. 1999년 조사에 의하면 조인 금융회사의 60% 이상이 환경과 관련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었다. 21세기에 들어 금융 이니셔티브는 금융서비스 분야의 275개 기관들을 포함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니셔티브는 지역회의, 워크숍, 그리고 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하는 등 그 경계를 넓혀가고 있으며 또한 필리핀과 남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서와 같은 특정한 지역적 이슈를 조사하는 것도 목표에 포함

14) FII와 III의 성명서를 보려면 부록 A를 참조하시오.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도입 방안

하고 있다.

2) FDIC 지침

CERCLA의 대부자 책임이 Fleet Factors 관례 등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되자 FDIC는 1993년 은행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은행들에 환경위험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전명하고 환경위험 프로그램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an Environmental Risk Program)을 발표하였다. FDIC 지침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환경위험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발적인 평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FDIC 지침의 주요 내용은 은행이 잠재적 환경위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대출과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은행 이사회는 이러한 절차를 심사하고 승인하며, 또한 환경위험평가를 수행할 환경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 은행 경영진에 포함시키고 금융회사의 사정에 맞는 환경위험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은행은 대출승인 이전에 차입자로 하여금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공개를 요구하며, 가능한 모든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 수집을 통해 환경오염이 있는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공인된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현장평가의 지침은 은행자체 내에서 만들 수도 있으나 ASTM\(^{15}\)\) 등 공인된 기관의 지침에 의거하여 실사를 반드시 은행이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계약서에 환경책임 조항을 포함시켜 잠재적 환경책임의 비용분담을 미리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15}\)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의 환경실태 절차에 대해서는 부록 B를 참고하시오.
있다. 또한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오염 여부를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환경문제 발생시 이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FDIC의 지침은 특정한 환경위험평가 프로그램을 지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다음의 8가지 주요한 항목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1) 종업원 교육, (2) 은행의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 지침과 절차의 수립, (3) 환경위험 분석, (4) 상세한 환경영향평가, (5) 대출심사 서류에서의 환경조항 반영, (6) 적절한 감시, (7) 차입자의 기업운영에 지나친 관여의 배제, (8) 담보권 실행시 적절한 방어기제 마련 등이 그것이다.

FDIC의 지침은 현재 미국의 은행권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한 방식의 환경위험평가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개의 금융회사들은 FDIC 지침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의 환경위험평가와 환경실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여 최대한 CERCLA상의 대부자 책임회피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Federal Reserve 지침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지침은 1995년에 환경위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16) 이 지침은 은행들이 환경영험이 대한 안전장치의 확보 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지침은 대출업무와 관련된 환경실사(environmental due diligence)에 대한 사항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권장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환경영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포트폴리오 분

16) Guideline for Rating Risk Management at State Member Banks and Bank Holding Companies
석, 신용조사, 대출, 파산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모두 은행의 고유업무 수행에 있어서 환경책임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4) EPA Model PPA 지침

EPA Model PPA(Prospective Purchaser Agreement)는 EPA가 제시한 잠재적인 구매자의 계약사항에 관한 것으로 특히 수편펀드 적용지(Superfund site)와 관련이 있다. 이는 CERCLA의 선량한 구매자 보호조항 또는 EPA의 토지소유자의 의무 지침이 정확하게 적절한 심사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의하면 모든 적절한 심사는 각각의 사례별로 시행되어야 한다. EPA는 특히 상업용 부동산 거래자간에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관한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4. 우리나라 금융회사에서의 환경위험관리 전략 방향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환경책임 부담을 직접적으로 지는 경우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없어 직접위험(direct risk)을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평판위험(reputational risk)도 아직까지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17) 다만, 현재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간접위험(indirect risk)에는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간접위험이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차입자의 상환능력 저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용위험의 일부

---
17) 물론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Ⅲ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부 환경법 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직접책임이 설절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다만 금융회사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국내에서는 직접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환경위험은 기업의 재무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따라서 환경위험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히 부각되고 있으며 환경문제의 발생이 곧바로 신용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는 환경위험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대출에서도 의사결정 요소로서 반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금변하는 국제금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은 물론 개별 은행도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제도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은행은 환경위험관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UNEP FII Statement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회사가 신용공여 등을 통해 환경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환경위험관리를 도입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금융회사들도 UNEP FII Statement에 가맹하여 환경위험관리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UNEP FII Statement에 가맹한 국내 금융회사는 소수일 뿐더러 대출평가에 환경요인을 반영하는 은행도 많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은행의 국제화라는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환경위험관리의 첫 단계로서 금융감독당국은 물론 금융회사들도 환경위험을 위험, 특히 신용위험(credit risk)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대출의사결정의
한 요소로 공식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FLC에 의한 자산건전성 평가에서 환경위험을 한 요소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신용등급평가에 환경위험을 평가요인으로 공식화시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UNEP FII statement에 조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기초하여 적절한 금융회사의 환경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은행은 국내법 및 관행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환경정책을 자발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환경위험관리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즉, 환경위험의 중요성 및 환경위험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구체적인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을 공식적으로 작성·발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환경위험관리의 주요 부분인 환경성과 및 환경실사(environmental due diligence)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경실사에는 미국의 경우, ASTM에 따라 checklist, TSP(transaction screen process), phase I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s, additional phases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s, environmental audits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checklist는 금융회사 내의 대출담당자에 의해 실시되며 나머지지는 금융회사 내외부의 환경전문가에 의해 실시된다.

환경위험이 신용위험의 일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가장 낮은 단계인 checklist에 의한 환경위험의 평가와 이를 대출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환경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금융회사 내부인력을 육성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가 집단의 이용에 대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여신심사 담당자들은 환경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훈련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

18)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 일부 증권회사와 은행이 FII 성명문에 조인하였다.
그러나 환경성과평가 및 환경실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국내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전문컨설턴트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환경위험도 금융회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최종적인 책임은 위험관리책임자가 부담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위험관리에는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관리에서와 같이 최고경영진의 참여가 필요하며 최고경영자들도 환경위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Ⅴ. 환경성과와 재무성과의 관계 분석

1. 서 론

본 장에서는 기업의 환경영향과 재무성과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조사한다. 다음 절에서 소개되는 세계 주요국에서의 분석에 의하면 그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환경영향과 재무성과는 양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뿐만 아니라, 두 변수사이에 뚜렷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먼저 환경영향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연례적인 환경보고서(Environmental report) 또는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서(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의 작성이 일반화되지 않아 환경영향에 대한 기본 자료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환경영향과 재무지표를 계량화하여 이를 기업의 재무지표와 비교·분석한다. 앞 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대부자 책임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금융회사들은 여신의사결정에서 환경영향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환경영향과 재무성과가 뚜렷이 정의 상관계수를 보이더라도 이와 같이 재무지표에 의한 여신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환경영향과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즉, 환경영향과 재무성과가 관련이 없거나 또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재무지표만에 의한

---

19) 여기서 이용한 환경영향에 대한 설문은 삼성지구환경연구소에서 수행한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여신의사결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심각한 환경위험에 노출시키게 될 것이 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대부자 책임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재무지표가 건전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여신의사결정에서 환경위험에 대한 평가는 더욱 중요하다. 환경위험으로 인한 대부자 책임은 다른 위험으로 인한 손실과는 달리 이론적으로 그 상한선이 무한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1) 환경성과와 재무성과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 근거

환경성과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은 곧 기업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우선, 우수한 환경성과는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 우수한 인재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종업원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여 종업원 등 참여자로 하여금 분명하고 강한 사명감을 갖게 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환경성과는 이러한 장기적인 효과 외에 단기적으로 비용절감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성과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어떤 기업이 환경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다면 차단 도어 플래그지반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높이며, 보다 에너지, 운영, 자원 절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자 한다면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수익과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은 수익과 시장 점유율, 그리고 이익의 증가 가능성이이라고 하는 기업 본연의 이해관계와도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 환경차별화(enironmental differentiation) 전략은 시장에서의 기업경쟁력을 확보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도입 방안

포레스트 라인하트에 따르면 제품의 환경차별화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에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한다. 첫째, 소비자들은 장기적으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비용절약 효과를 감안하여 이러한 제품에 대해 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둘째, 제품의 환경적 효과에 대한 신뢰할 만한 의사소통이 기업과 소비자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업은 투자에 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동안 경쟁사로부터 자신의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이미 일부 현재에도 갖추어져 있으며, 미래에는 완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무엇보다도 오늘날에는 정부기관,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기업 제품의 환경화학적 여부에 대해 끔찍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서는 환경성과지표(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icator)가 적극 개발됨으로써 기업들의 환경성과를 지표화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이미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녹색소비자주의에 호소함으로써, 또한 소비자 총성도를 높임으로써 자신들의 시장점유율과 수익을 높일 수 있다. 환경차별화 전략은 녹색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녹색소비자들에게 환경받음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높이게 된다. 그런데 기업이 만약 녹색 제품과 기존 제품을 동시에 시장에 제공할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환경친화적 소비자들은 이러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신심하지 못한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녹색 제품의 출시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녹색후과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해당 기업의 다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한편, 환경성과를 외부보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업일수록 많은
V. 환경성과와 재무성과의 관계 분석

경우 자사가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우선, 환경성과 보고를 통해 시장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시장위험을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줄일 수 있다. 첫째, 규제당국으로부터의 제품생산 금지나 판매제한 등 각종 규제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둘째, 기업의 규제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로부터 자사의 핵심 제품이 외면당할 가능성을 줄인다. 셋째, 다양한 환경오염 요인으로부터 자사의 핵심 제품 혹은 서비스의 질이 멀어질 가능성을 줄인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으로 인해 관광사업의 시장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오염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미리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채택은 기업으로 하여금 대차대조표상의 부채 증가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첫째, 오염된 토지에 대한 복원책임의 가능성을 줄인다. 둘째, 보험회사의 경우 지불 보험금의 증가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 폭풍과 홍수 등,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한 보험금 지불액이 급속히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보험회사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셋째, 부동산 자산 가치 하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넷째, 환경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다섯째, 작업장에서의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피해로의 소송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험의 감소효과를 볼 수 있다. 첫째, 기름유출과 환경사고에 따른 정화비용을 감소시킨다. 둘째,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피해로의 안전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킨다. 셋째, 정부 규제의 강화에 따라 공정과정을 개
선하는 데 따른 과다한 비용지출 가능성을 줄인다. 넷째, 자연자원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2)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

인과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문헌상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이윤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 비해 환경오염방지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할 여력이 있다. 둘째, 보다 높은 환경성과를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기업은 더욱 향상된 재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환경성과를 보여주는 기업들은 대체로 경영능력이 우수하다. 따라서 우수한 환경성과를 통해 증명된 탁월한 경영능력은 자연스럽게 우수한 재무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가설들은 아직까지 실증연구를 통해 충분히 증명되거나 반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이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환경성과와 재무성과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지하는 실증분석 결과가 많다는 사실 자체는 양자간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Hong and Hwang(2001)은 90년대 우리나라의 대표적 환경사고 사례인 Sea Prince호 기름유출사고와 페놀(Phenol) 유출사고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들은 사전연구를 통해 환경사고는 주식시장에서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가설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약한 증거(weak evidence)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Ⅴ. 환경성과와 재무성과의 관계 분석 65

3. 환경성과 측정을 위한 설문

1) 설문의 일반적 내용

환경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환경회계를 이용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아직 까지는 선진국에서도 환경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설문지를 이용하고 있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서 내용>

1) 가치사슬(Value Chain)활동 관련
   A. 지원활동
      - 기업의 환경책임 및 환경의 가치와 위험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지?
      - 기업문화 및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종업원 교육훈련을 하고 있는지?
      - 전과정의 환경측면을 고려한 제품설계 및 청정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지?
      - 공급업체를 비롯한 관련업체와의 환경적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지?

   B. 주활동
      - 재생가능한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 운송방법의 선택에 있어 환경을 고려하고 있는지?

---

20) 대표적으로 지속가능성 추가지수인 Dow Jones Sustainability Group Index에서도 환경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종적으로는 설문에 의존하고 있다.
- 원료의 선택에 있어 회귀동식물을 보호하는지?
- 자원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있는지?
-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 오염물질 및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 하고 있는지?
- 재생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 소비자의 안전 및 보건을 고려하고 있는지?
- 제품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 제품에 관한 환경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 폐기된 제품의 take-back이나 재이용을 고려하고 있는지?
- 제품의 수리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는지?
- 환경친화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지?

2) 환경경영 시스템

- 환경위험의 평가에 관하여
  · 현재 어떻게 환경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 현재 환경규제 법규 및 요건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 환경계획에 관하여
  · 환경성과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가?
  · 필요한 허가와 승인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 환경계획 이행과 관련하여
  · 환경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 심각한 환경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 발생한 환경영향을 어떻게 방지하고, 줄이고 있는가?
Ⅴ. 환경성과와 재무성과의 관계 분석 67

- 돌발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 환경계획 이행상황의 감시와 관련하여
  -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가?
  - 성과를 어떻게 확인하고 보장하고 있는가?
  - 성과를 어떻게 공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가?
- 환경계획 이행을 위한 지원
  - 교육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문서화 및 문서의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3) 오염물질 관리에 대하여
-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대하여
  - 대기오염 물질원은 무엇인가?
  -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 수질오염물질 관리에 대하여
  - 폐수처리시설은 무엇이 있으며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 폐수처리를 법규에 맞게 처리하고 있는가?
  - 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 폐수가 보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
- 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 폐기물이 어디(공정단계)에서 발생하는가?
  - 폐기물을 어떻게 저장하고 있는가?
  -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 비상대응 및 위험물질에 대하여
  - 위험물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으며 그 기록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하저장탱크 관리에 대하여(정유산업의 경우)
- 저장탱크의 설치시기와 용량은 어느정도 인가?
- 저장탱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 저장탱크의 저장과 사용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가?
- 흘림 방지 및 긴급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잠재적인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관하여(정유산업의 경우)
  - 정화활동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시나리오 작성 유무)
  - 사고발생시 오염될 수 있는 영역을 예상하고 있는가?
  - 토양오염 설비를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표 3> 환경성과 평가를 위한 주요 평가항목

<table>
<thead>
<tr>
<th>평가영역</th>
<th>평가 항목</th>
<th>평가영역</th>
<th>평가 항목</th>
</tr>
</thead>
<tbody>
<tr>
<td>조직 및 시스템</td>
<td>환경경영 조직 구축</td>
<td>운영 및 생산</td>
<td>원부자재 관리</td>
</tr>
<tr>
<td></td>
<td>환경경영체계 운영</td>
<td></td>
<td>배출시설 및 청정기술</td>
</tr>
<tr>
<td></td>
<td>환경감사 수행</td>
<td>지구환경 보전</td>
<td>국제규제 동향 분석</td>
</tr>
<tr>
<td></td>
<td>환경성과평가 수행</td>
<td></td>
<td>온실가스 저감 활동</td>
</tr>
<tr>
<td></td>
<td>환경교육 실시</td>
<td></td>
<td>국제협약 준수 여부</td>
</tr>
<tr>
<td>운 영 및 생산</td>
<td>법규 준수 여부</td>
<td></td>
<td>생태계 보존 노력</td>
</tr>
<tr>
<td></td>
<td>에너지 및 용수 관리</td>
<td></td>
<td>LCA 및 DFE 도입</td>
</tr>
<tr>
<td></td>
<td>대기질 관리</td>
<td>환경경영 선진화</td>
<td>환경회계의 도입</td>
</tr>
<tr>
<td></td>
<td>사업장 폐기물 관리</td>
<td>제품관리 환경정보 공개</td>
<td></td>
</tr>
<tr>
<td></td>
<td>토양 및 지하수 감시</td>
<td>녹색구매의 실시</td>
<td></td>
</tr>
<tr>
<td></td>
<td>공정별 물질 수지 관리</td>
<td>폐제품 회수 및 재활용</td>
<td></td>
</tr>
</tbody>
</table>
Ⅴ. 환경성과와 재무성과의 관계 분석 69

2) 본 연구에서의 설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성과 평가하기 위해 삼성지구환경연구소의『지속가능성(Sustainability)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이용하였다. 이 보고서는 환경성과의 세부평가항목 설정은 기존연구와 국제단체의 평가항목을 종합 정리하여 선정하였다. 평가영역별 평가항목은 보편성을 높이기 위해 ISO의 기준과 UNEP와 같은 국제단체 등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선정하고 있다. 평가항목의 주요 내용은 앞의 표 3과 같다.21)

4. 재무비율과 환경성과의 관계 분석

1) 자료 및 변수

본 연구에서 이용된 기업은 모두 41개인데 이 가운데 비상장기업이 15개 상장기업이 26개이며, 금융회사가 1개이다. 하나의 금융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대상 기업은 대부분 제조업체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골고루 섞여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환경경영에 큰 관심을 갖는 기업이 많지 않아 설문조사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 자료 부족 등으로 일부 기업들은 응답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기업이 일부 항목에 대해 응답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설문에 의한 환경성과 측정을 두 가지로 하였다. 즉,

21)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지구환경연구소의『지속가능성(Sustainability)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 연구』를 참고하라.
응답을 포기한 항목에 대한 배점을 0으로 처리한 경우와, 표준점수 계산에서 그 항목을 제외시킨 경우이다.\(^{22}\) 한편 재무성과는 ROA와 ROE 등 주요 재무비율과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주식수익률 등을 이용하였으며, 나아가 로짓 모형에 의한 부도확률을 계산하여 이들과 환경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 주요 재무비율의 비교

<표 4>에서는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상장기업 그리고 표본기업의 주요 재무비율들이 제시되어 있다. 표에 의하면 ROE 및 ROA 등 주요 재무비율이 표본기업 평균이 전체기업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표본기업들이 주로 우량기업 위주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thead>
<tr>
<th>재무비율</th>
<th>차입금의 존도</th>
<th>이자 보상 비율</th>
<th>매출채권 대 매입 재무비율</th>
<th>순순전 자본 대 총자산 비율</th>
<th>경상 이익 증가율</th>
<th>유동 비율</th>
<th>부채 비율</th>
<th>총자본 경상 이익률</th>
<th>총자 산회 전율</th>
<th>재고 자산 회전율</th>
<th>매출 약축 가용</th>
<th>ROE</th>
<th>ROA</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2001 31.46  1.46 135.86 -0.16 -1.65 99.36 195.58 1.06 106.19 1,211.47 -17.45 1.52 0.5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02 30.59  2.64 125.92 1.87 407.70 105.22 144.66 4.80 112.29 1,239.24 17.45 13.03 5.3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03 29.03  3.51 139.10 3.61 13.59 110.05 131.31 5.07 106.78 1,180.89 2.38 9.28 4.0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평균 30.36  2.54 133.63 1.77 130.88 104.94 157.18 3.64 108.42 1,210.54 0.79 7.95 3.2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상장</td>
<td>2001 26.83  1.31 120.70 -3.13 85.06 90.06 151.12 0.28 97.55 1,408.05 -2.21 0.59 0.2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02 22.27  2.90 118.00 -1.36 20.64.44 95.63 116.60 6.06 102.45 1,543.38 2.02 10.23 4.7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03 19.23  3.98 118.44 0.73 6.67 102.52 101.82 6.17 89.24 1,285.95 -8.69 -1.04 5.1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평균 22.77  2.73 119.05 -1.25 70.72 96.07 123.18 4.17 96.41 1,425.43 -2.96 7.09 3.3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표본</td>
<td>2001 19.77  3.12 102.82 -2.15 -93.99 92.41 87.42 11.28 123.77 1,825.53 -49.25 0.31 0.2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02 15.66  7.74 69.92 1.87 129.84 106.49 75.12 22.50 130.05 1,871.14 12.95 17.42 9.9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03 12.82 10.31 118.16 4.69 -7.43 116.93 65.73 18.17 103.28 1,334.82 -13.65 14.67 8.8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평균 16.08  7.06 96.97 1.47 9.47 105.28 76.09 17.32 119.03 1,551.87 -16.65 13.80 7.9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22}\) 실증분석에서 두 경우를 각각 환경성과 1과 환경성과 2로 이름지어 변수로 사용하였다.
3) 환경성과와 재무성과의 관계

&lt;표 5&gt;에는 앞 표의 여러 비율 가운데 ROE와 ROA 그리고 주가수익률과 환경성과의 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표에 의하면 2001년보다는 2003년에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겪으며 안정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에 환경성과와 ROA 및 ROE의 상관계수는 모두 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환경성과와 ROA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OA의 상관관계가

<table>
<thead>
<tr>
<th>환경성과 자료(연도별)</th>
<th>ROE</th>
<th>ROA</th>
<th>주가수익률</th>
</tr>
</thead>
<tbody>
<tr>
<td></td>
<td>2001</td>
<td>2002</td>
<td>2003</td>
</tr>
<tr>
<td>환경성과 1)</td>
<td></td>
<td></td>
<td></td>
</tr>
<tr>
<td>2001</td>
<td>-0.09028 (0.5981)</td>
<td>0.90088 (0.5981)</td>
<td>-0.18513 (0.3756)</td>
</tr>
<tr>
<td>2002</td>
<td>0.24348 (0.1524)</td>
<td>0.36764 (0.2744)</td>
<td>0.22161 (0.287)</td>
</tr>
<tr>
<td>2003</td>
<td>0.17411 (0.3098)</td>
<td>0.31364 (0.2866)</td>
<td>-0.1014 (0.6296)</td>
</tr>
<tr>
<td>3년 평균</td>
<td>0.16432 (0.3382)</td>
<td>0.30087 (0.7469)</td>
<td>-0.09055 (0.6350)</td>
</tr>
<tr>
<td>환경성과 2)</td>
<td></td>
<td></td>
<td></td>
</tr>
<tr>
<td>2001</td>
<td>0.01883 (0.9132)</td>
<td>0.14662 (0.935)</td>
<td>-0.18099 (0.606)</td>
</tr>
<tr>
<td>2002</td>
<td>0.27071 (0.1103)</td>
<td>0.36103 (0.2005)</td>
<td>0.20027 (0.3371)</td>
</tr>
<tr>
<td>2003</td>
<td>0.22871 (0.1797)</td>
<td>0.31214 (0.0638)</td>
<td>0.21372 (0.305)</td>
</tr>
<tr>
<td>3년 평균</td>
<td>0.22941 (0.1783)</td>
<td>0.31426 (0.062)</td>
<td>0.15451 (0.4608)</td>
</tr>
</tbody>
</table>

주 : 1) 주가수익률은 표본기업 가운데 상장기업만을 대상하였음. ( ) 안은 p-value이며, **는 5% 유의수준,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임.
2) 환경성과 1은 설문지 항목을 모두 포함시킨 경우이며, 환경성과 2는 무응답 항목을 배제한 경우임.
높은 것은 표본기간이 아직 외환위기의 영향권 내에 있어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아직 높은 등 기업별로 자기자본의 편차가 크고 자기자본과 자산 사이에 관계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과관계는 알 수 없지만, 환경성과가 높은 기업이 재무성과도 높게 나타난다는 외국의 사례와 일치한다. 다만 주가수익률의 경우에는 그 관계가 양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이 또한 환경사고와 주식시장의 반응에 대한 국내 연구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환경사고에 대한 국내 주식시장의 반응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여기서도 주식시장은 주가에 환경성과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부도확률과 환경성과의 관계

여기서는 기업부실 예측 모형을 이용하여 표본기업의 부도확률을 계산하고 환경성과와 부도확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조사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과거의 부도기업을 선정한 후, 이에 대비한 정상기업을 선택하여 로짓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표본기업의 부도확률을 계산하고 계산된 부도확률과 환경성과를 비교하였다.

1) 기업부실 예측 모형과 추정

부실기업예측모형은 크게 단일변량 모형과 다변량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단일변량모형에는 프로파일분석(profile analysis)이 있으며, 다변량모형에는 판별분석모형(discriminant analysis model; DA model), 지수모형(index model), 로짓분석모형(logit analysis model) 및 프로빗분석모형(probit analysis model) 등이 있다.
Ⅴ. 환경성과와 재무성과의 관계 분석 73

본 분석에서는 기업부실예측을 위한 모형으로 로짓분석모형을 이용한다. 이 경우, 각 기업의 특성은 각종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파악된다. 로짓모형에 의하면 기업부실 가능성을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

가. 모형

로짓모형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부도확률을 계산하게 된다. 만일, 이렇게 계산된 부도확률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부실기업으로 판정한다. 범주형 종속변수에 대한 분석기법으로 발전된 이산형 확률모형 이론들 가운데 다양한 모형이 기업도산예측에 사용되었으나 본 분석에서는 Ohlson(1980)의 로짓모형을 이용하기로 한다.23)

\[
P = \frac{1}{1+e^{(-Z)}} = \frac{1}{1+e^{-(w_0 + w_1x_1 + w_2x_2 + \cdots + w_nx_n)}}
\]

\(P\) : 부도확률
\(w_i\) \((i = 1, 2, \ldots, n)\) : 계수
\(x_i\) \((i = 1, 2, \ldots, n)\) : 재무비율 (독립변수)

나. 모형의 추정


리 및 화의공시를 한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분류하였다. 로짓모형의 추정을 위해서는 부실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해줄 수 있는 재무비율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이용하여 여러 재무비율 가운데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재무비율을 부실예측을 위한 변수로 채택하였다. 분석을 위해 고려대상이 된 재무비율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정성지표 11개, 수익성지표 11개, 활동성지표 6개 및 성장성지표 7개 등 총 35개이다.

단계적 선택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부실 예측과 관련이 깊은 재무비율로 다음과 같은 5개의 변수가 채택되었다. 우선 안정성비율로 차입금의존도, 매출채권 대 매입채무 비율, 순운전자본 대 총자본 비율 등이 채택되었으며, 수익성비율로 이자보상비율이, 그리고 성장성비율로 경상이익증가율이 채택되었다. 단계적 회귀분석에 의해 선정된 변수에 대한 로짓모형 추정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서는 차입금의존도와 이자보상비율은의 계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부실예측에 주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운전자본 대 총자본비율과 매출채권 대 매입채무비율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7>에서 나타난 모형의 문제점은 유의성이 낮은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이 모형에서 차입금의존도는 부실확률을 설명하는 변수라고 하기 곤란하다. 한편, 차입금의존도와 이자보상비율의 회귀계수 부호는 음으로 추정되어 식(1)에서 이들 변수가 커질수록 부실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단중회귀분석에서 개별 변수의 회귀계수 부호의 의미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기대와 일치하는 것이다.
<표 6> 주요 재무비율

<table>
<thead>
<tr>
<th>지</th>
<th>표</th>
<th>산출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안정성 (Stability)</td>
<td>안정성비율</td>
<td>자기자본*총자본×100</td>
</tr>
<tr>
<td></td>
<td>유동비율</td>
<td>유동자산*유동부채×100</td>
</tr>
<tr>
<td></td>
<td>당좌비율</td>
<td>당좌자산*유동부채×100</td>
</tr>
<tr>
<td></td>
<td>고정비율</td>
<td>고정자산* 자기자본×100</td>
</tr>
<tr>
<td></td>
<td>고정장기적합률</td>
<td>((고정자산+투자자산)/(고정부채+ 자기자본))×100</td>
</tr>
<tr>
<td></td>
<td>부채비율</td>
<td>총부채* 자기자본×100</td>
</tr>
<tr>
<td></td>
<td>유동부채비율</td>
<td>유동부채* 자기자본×100</td>
</tr>
<tr>
<td></td>
<td>고정부채비율</td>
<td>고정부채* 자기자본×100</td>
</tr>
<tr>
<td></td>
<td>차입금의존도</td>
<td>(회사채+장단기차입금)* 총자본×100</td>
</tr>
<tr>
<td></td>
<td>매출채권대매입채무비율</td>
<td>매출채권* 매입채무×100</td>
</tr>
<tr>
<td></td>
<td>순운전자본대총자본비율</td>
<td>순운전자본* 총자본×100</td>
</tr>
<tr>
<td>수익성 (Profitability)</td>
<td>총자본경상이익률</td>
<td>경상이익* 총자본×100</td>
</tr>
<tr>
<td></td>
<td>총자본순이익률</td>
<td>순이익* 총자본×100</td>
</tr>
<tr>
<td></td>
<td>자기자본경상이익률</td>
<td>경상이익* 자기자본×100</td>
</tr>
<tr>
<td></td>
<td>자기자본순이익률</td>
<td>순이익* 자기자본×100</td>
</tr>
<tr>
<td></td>
<td>매출액경상이익률</td>
<td>경상이익* 매출액×100</td>
</tr>
<tr>
<td></td>
<td>매출액순이익률</td>
<td>순이익* 매출액×100</td>
</tr>
<tr>
<td></td>
<td>총자산영업이익률</td>
<td>영업이익* 총자산×100</td>
</tr>
<tr>
<td></td>
<td>총자산영업외이익률</td>
<td>영업외이익* 총자산×100</td>
</tr>
<tr>
<td></td>
<td>매출액영업이익률</td>
<td>영업이익* 매출액×100</td>
</tr>
<tr>
<td></td>
<td>재무개념외비용비율</td>
<td>영업외비용* 영업결과×100</td>
</tr>
<tr>
<td></td>
<td>매출액대영업외비용비율</td>
<td>매출액* 영업외비용×100</td>
</tr>
<tr>
<td>활동성 (Activity)</td>
<td>총자산회전율</td>
<td>매출액* 총자산×100</td>
</tr>
<tr>
<td></td>
<td>재고자산회전율</td>
<td>매출액* 재고자산×100</td>
</tr>
<tr>
<td></td>
<td>고정자산회전율</td>
<td>매출액* 고정자산×100</td>
</tr>
<tr>
<td></td>
<td>매출채권회전율</td>
<td>매출액* 매출채권×100</td>
</tr>
<tr>
<td></td>
<td>매입채무회전율</td>
<td>매출액* 매입채무×100</td>
</tr>
<tr>
<td></td>
<td>운전자본회전율</td>
<td>매출액* 운전자본×100</td>
</tr>
<tr>
<td>성장성 (Growth)</td>
<td>매출채권증가율</td>
<td>(당기매출채권* 전기매출채권)-1</td>
</tr>
<tr>
<td></td>
<td>재고자산증가율</td>
<td>(당기재고자산* 전기재고자산)-1</td>
</tr>
<tr>
<td></td>
<td>고정자산증가율</td>
<td>(당기고정자산* 전기고정자산)-1</td>
</tr>
<tr>
<td></td>
<td>총자산증가율</td>
<td>(당기총자산* 전기총자산)-1</td>
</tr>
<tr>
<td></td>
<td>매입채무증가율</td>
<td>(당기매입채무* 전기매입채무)-1</td>
</tr>
<tr>
<td></td>
<td>매출액증가율</td>
<td>(당기매출액* 전기매출액)-1</td>
</tr>
<tr>
<td></td>
<td>경상이익증가율</td>
<td>(당기경상이익* 전기경상이익)-1</td>
</tr>
</tbody>
</table>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도입 방안

<표 7> 로짓 모형 추정결과 : 단계적 선택 변수

<table>
<thead>
<tr>
<th></th>
<th>계수</th>
<th>$\chi^2$</th>
</tr>
</thead>
<tbody>
<tr>
<td>절편</td>
<td>3.6942(0.8273)</td>
<td>19.9391</td>
</tr>
<tr>
<td>차입금의존도</td>
<td>-0.0567(0.0173)</td>
<td>10.7259</td>
</tr>
<tr>
<td>이자보상비율</td>
<td>-0.0833*(0.0528)</td>
<td>2.5062</td>
</tr>
<tr>
<td>매출채권 대 매입채무비율</td>
<td>0.000996(0000467)</td>
<td>4.5581</td>
</tr>
<tr>
<td>순운전자본 대 총자본비율</td>
<td>-0.0139**(0.0116)</td>
<td>1.4239</td>
</tr>
<tr>
<td>경상이익증가율</td>
<td>0.000792**(0.000722)</td>
<td>1.2002</td>
</tr>
</tbody>
</table>

주 : ( )는 표준오차
*는 유의수준 5%에서 귀무가설 기각 못함.
**는 유의수준 10%에서 귀무가설 기각 못함.

2) 부도확률과 환경성과의 상관분석

여기서는 우선 위에서 추정된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표본기업의 부도확률을 추정한 뒤 이 확률과 환경성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여기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환경성과를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다. <표 8>에 환경성과와 부도확률의 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표에 의하면, 환경성과에 대한 측정치는 상관없이 환경성과와 부도확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성과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부도확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적어도 환경성과 부도확률 사이에는 관계가 없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앞에서 환경성과와 ROA 및 ROE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와는 유사한 것이다.
즉, 부도확률 계산에 ROA 및 ROE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ROA 및 ROE 가 높은 기업이 부도확률이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에 부합되는 결과이다.

이는 곧 재무적 기준, 특히 신용위험에 근거한 여신의사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만일, 전반적인 재무지표와 환경성과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한다면, 환경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재무적 지표와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환경위험이 여신심사에 간접적으로도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여신심사에서 환경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환경위험은 일종의 사건위험(event risk)으로서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 이는 특히 대부자 책임이 실현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위의 결과의 또 하나의 시사점은 재무적 성과가 우수하지 않은 한계기업에 대한 여신에서 환경위험에 대한 고려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전술한 바와 같

<table>
<thead>
<tr>
<th>연도</th>
<th>환경성과 1</th>
<th>환경성과 2</th>
</tr>
</thead>
<tbody>
<tr>
<td>2001</td>
<td>-0.20984 (0.2193)</td>
<td>-0.06441 (0.709)</td>
</tr>
<tr>
<td>2002</td>
<td>-0.26732 (0.115)</td>
<td>-0.1186 (0.4909)</td>
</tr>
<tr>
<td>2003</td>
<td>-0.36351 (0.0293)**</td>
<td>-0.22596 (0.1851)</td>
</tr>
<tr>
<td>평균</td>
<td>-0.3114 (0.0645)*</td>
<td>-0.16257 (0.3435)</td>
</tr>
</tbody>
</table>

주: * 10% 유의수준, **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경우임. 환경성과 1은 설문지 항목을 모두 포함시킨 경우이며, 환경성과 2는 무응답 항목을 배제한 경우임.
이 두 변수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관찰된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성과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지 않은 데서 오는 결과일 수 있다.

3) 환경성과에 대한 회귀분석

여기서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앞에서 분석된 결과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모형은 다음과 같다. 

\[ Env_i = \alpha_i + \beta_{i,1} \text{ROA} + \beta_{i,2} \text{ROE} + \beta_{i,3} \text{Return} + \beta_{i,4} \text{Default} + \epsilon_i \] 
\[ \epsilon \sim N(0, \sigma^2) \]  

여기서 Env는 환경성과를 의미하는데, 환경성과는 응답을 하지 않은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i=1)와 응답을 하지 않은 항목을 배제한 경우(i=2) 등, 두 가지로 측정된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두 가지에 대한 회귀분석이 실시된다. Return은 주가수익률을 의미하며 Default는 앞에서 계산된 부도확률이다. 그런데, 비상장종목의 경우, 주가수익률을 구할 수 없으므로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한 주가수익률을 제외하고 모든 기업 자료를 이용한 모형과 주가수익률을 독립변수로 이용하기 위해 상장기업 자료만 이용한 모형 등 두 가지 분석을 실시한다. 따라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 Env_i = \alpha_i + \beta_{i,1} \text{ROA} + \beta_{i,2} \text{ROE} + \beta_{i,3} \text{Return} + \beta_{i,4} \text{Default} + \epsilon_i \] 
\[ \epsilon \sim N(0, \sigma^2) \]
V. 환경성과와 재무성과의 관계 분석

<표 9>에는 종속변수로는 환경성과 1, 그리고 독립변수에 주가수익률이 포함된(즉, 상장기업 자료만 이용된) 분석의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 표에 의하면 2003년의 경우, ROA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의 회귀계수는 모두 음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도확률의 회귀계수도 상관분석에서와 같이 음수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환경성과와 재무성과가 서로 관련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재무적 측면에서 경영실적이 뛰어난 기업의 환경위험이 낮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종속변수가 환경성과 2인 경우인 <표 10>을 보면, 2003년에 ROE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의 계수가 양으로 추정되어 <표 9>의 결과와 상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표 10>에서 이용된 종속변수가 실제 환경성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즉, 환경성과 2에는 응답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하고 측정된 성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응답하지 않은 것은 실제 관련된 환경경영활동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종속변수로 환경성과 1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성과 2를 사용하는 것 보다 타당성이 높은 것이다.

<표 9> 회귀분석결과 : 상장기업, 환경성과 1

<table>
<thead>
<tr>
<th>연도</th>
<th>절편</th>
<th>ROE (p-value)</th>
<th>ROA (p-value)</th>
<th>주가수익률 (p-value)</th>
<th>부도확률 (p-value)</th>
</tr>
</thead>
<tbody>
<tr>
<td>2001</td>
<td>-0.44679 (0.6801)</td>
<td>-0.02593 (0.4861)</td>
<td>0.09103 (0.3853)</td>
<td>0.42158 (0.5395)</td>
<td>0.26175 (0.8096)</td>
</tr>
<tr>
<td>2002</td>
<td>-0.44679 (0.6801)</td>
<td>-0.02593 (0.4861)</td>
<td>0.09103 (0.3853)</td>
<td>0.42158 (0.5395)</td>
<td>0.26175 (0.8096)</td>
</tr>
<tr>
<td>2003</td>
<td>0.20116 (0.8125)</td>
<td>-0.00157 (0.8989)</td>
<td>0.03744 (0.5257)</td>
<td>-0.452 (0.3467)</td>
<td>-0.1868 (0.8331)</td>
</tr>
<tr>
<td>평균</td>
<td>0.06824 (0.9534)</td>
<td>-0.00669 (0.7897)</td>
<td>0.06974 (0.4505)</td>
<td>-0.55048 (0.2468)</td>
<td>0.01283 (0.9912)</td>
</tr>
</tbody>
</table>

주: * 10%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이러한 결과는 전체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즉, 주가수익률을 독립변수에서 제외한) 분석에서도 일치한다. 환경성과 1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된 <표 11>에서 회귀계수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표 9>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표 12>의 결과는 마찬가지로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 10>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표 9>에서 <표 12>까지의 대부분의 분석에서 설명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관찰되었다. 여기에는 모형설정에서의 오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기업경영활동이나 기업의 가치평가에서 환경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별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환경사고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미약하게 나타난 Hong and Hwang(2001)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이 시계열적으로는 물론 횡단면적으로도 제한적이라는 점도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성과와 재무성과간의 분석을

<표 10> 회귀분석결과 : 상장기업, 환경성과 2

<table>
<thead>
<tr>
<th>연도</th>
<th>절편</th>
<th>ROE</th>
<th>ROA</th>
<th>주가수익률</th>
<th>부도확률</th>
</tr>
</thead>
<tbody>
<tr>
<td>2001</td>
<td>-0.87782 (0.2777)</td>
<td>-0.05148 (0.4489)</td>
<td>0.14666 (0.2455)</td>
<td>-0.0544 (0.778)</td>
<td>1.1722 (0.2447)</td>
</tr>
<tr>
<td>2002</td>
<td>-0.5313 (0.1136)</td>
<td>-0.03896 (0.2328)</td>
<td>0.15469 (0.0972)*</td>
<td>-0.01158 (0.9844)</td>
<td>1.41705 (0.1429)</td>
</tr>
<tr>
<td>2003</td>
<td>-0.49678 (0.5256)</td>
<td>-0.00393 (0.7283)</td>
<td>0.05153 (0.3398)</td>
<td>0.14816 (0.7318)</td>
<td>0.41274 (0.6094)</td>
</tr>
<tr>
<td>평균</td>
<td>-1.45705 (0.1679)</td>
<td>-0.01633 (0.4643)</td>
<td>0.12447 (0.1357)</td>
<td>-0.07173 (0.8621)</td>
<td>1.41091 (0.18)</td>
</tr>
</tbody>
</table>

주: * 10% 유의 수준, ** 5% 유의 수준
위해서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긴 기간에 걸친 자료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 회귀분석 결과: 환경성과 1, 전체 표본기업(주가수익률 제외)

<table>
<thead>
<tr>
<th>연도</th>
<th>절편</th>
<th>ROE</th>
<th>ROA</th>
<th>부도확률</th>
</tr>
</thead>
<tbody>
<tr>
<td>2001</td>
<td>-0.38555 (0.6132)</td>
<td>-0.13829 (0.0047)***</td>
<td>0.20773 (0.007)***</td>
<td>0.38088 (0.6468)</td>
</tr>
<tr>
<td>2002</td>
<td>-0.64222 (0.3925)</td>
<td>-0.03665 (0.2102)</td>
<td>0.12875 (0.0791)*</td>
<td>0.33428 (0.6098)</td>
</tr>
<tr>
<td>2003</td>
<td>-0.15696 (0.8305)</td>
<td>-0.00823 (0.4846)</td>
<td>0.06261 (0.2321)</td>
<td>-0.10053 (0.8965)</td>
</tr>
<tr>
<td>평균</td>
<td>-0.21003 (0.8209)</td>
<td>-0.01912 (0.4073)</td>
<td>0.08737 (0.241)</td>
<td>-0.08459 (0.929)</td>
</tr>
</tbody>
</table>

주: * 10%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표 12> 회귀분석 결과: 환경성과 2, 전체 표본기업(주가수익률 제외)

<table>
<thead>
<tr>
<th>연도</th>
<th>절편</th>
<th>ROE</th>
<th>ROA</th>
<th>부도확률</th>
</tr>
</thead>
<tbody>
<tr>
<td>2001</td>
<td>-1.12415 (0.166)</td>
<td>-0.1172 (0.0198)**</td>
<td>0.255 (0.0136)***</td>
<td>1.16005 (0.1891)</td>
</tr>
<tr>
<td>2002</td>
<td>-1.36238 (0.0717)*</td>
<td>-0.0438 (0.1315)</td>
<td>0.15915 (0.03)**</td>
<td>1.1487 (0.14)</td>
</tr>
<tr>
<td>2003</td>
<td>-0.73424 (0.3218)</td>
<td>-0.00788 (0.5044)</td>
<td>0.07653 (0.1475)</td>
<td>0.59489 (0.4447)</td>
</tr>
<tr>
<td>평균</td>
<td>-1.22411 (0.1892)</td>
<td>-0.02184 (0.3407)</td>
<td>0.126 (0.092)*</td>
<td>1.01688 (0.2845)</td>
</tr>
</tbody>
</table>

주: * 10% 유의수준, **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6. 시사점

I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CERCLA에서와 같이 대부자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많으나 대다수의 선진국 금융회사들은 대부자 책임의 압력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신심사시 환경실사를 실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외환위기를 겪으며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가운데 2001년 우리나라에서도 대부자 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법률이 제정되었다.24)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금융회사는 구조조정을 겪는 와중에 있으며, 현재 실제적인 위험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환경위험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듯하다.

본 절의 분석에 의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환경위험은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평가에 미약한 반영이 되고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의 재무성과와 환경성과 사이에는 유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양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성과 부도확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부도확률이 낮고 재무적 성과가 우수한 우량기업의 환경위험이 그렇지 않은 기업의 환경위험보다 대체로 작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본 절에서 실시된 분석은 조사 대상 기업의 대표성 문제, 설문에 의존함에 따른 문제, 분석 기간의 문제 등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미국에서의 사례에서 보듯이 환경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그 피해는 막대하

나,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또한, 여신심사에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관행은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된다. 따라서, 국내 금융회사도 이제부터라도 환경위험관리에 관심을 갖고 최소한의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I. 환경관련 금융상품

환경 관련 이슈는 이제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금융회사에 위협 요소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 금융회사들은 이를 기회로 인식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특히 자본시장에서의 투자활동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특히 유럽의 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환경과 관련된 금융상품에 대해 조사하고 유가증권 투자에서 환경과 관련된 상품과 역할을 논한다.

1. 금융회사의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

환경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금융회사들은 전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위험관리 수단을 개발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위협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즉, 금융회사들은 환경과 관련된 새로운 상품을 고안하였는데 이는 환경 보전과 관련된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환경관련 사업에 보다 쉽게 자본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환경과 관련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지급결제, 예금 및 투자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환경대출(environmental loan)과 같은 상품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요구불 예금 가운데 환경보호와 관련된 상품은 거의 없다. 그러나 영국의 Co-operative Bank와 네덜란드의 Triodos Bank는 고객의 당좌예금의 잔고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한 대출 및 투자에USED 사용하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저축성 예금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보호상품은 아직까지는 틈새시장에 미
무르고 있는데, 네덜란드 ASN과 Trodos bank 등이 제공하고 있다. 이 은행들은 예금이 지속가능대출 및 투자에 연결되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ING 와 Rabobank는 다른 대형은행과는 달리 환경 관련 수신 상품을 내놓고 있다. 라보뱅크는 “destination accounts”의 도입을 고려중인데, 예금주는 자신의 예금이 투자되는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한편, 주어진 환경 기준을 만족시키는 고객들에게 대해서는 낮은 대출금리, 수수료 인하, 또는 예금금리에 대한 우대 등 우대 금융 패키지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

환경과 관련된 대출상품의 그린 주택저당대출 상품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의 ING의 그린 모기지 (Green Mortgage)는 환경훼손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의 구입자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유지되도록 지어진 집들은 에너지와 수자원 보존, 물질 사용 그리고 실내 환경에 있어서의 엄격한 기술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만 한다. 구매자들은 시중의 이자율보다 낮은 1.5~2.0%인 이자율의 혜택을 받는다.

2. 환경 및 지속가능성과 투자

환경보전이 금융부문에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곳이 자본시장이다. 환경관련 투자는 20세기 초부터 존재한 사회적 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ements)와 맞물려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및 호주 등지에서 급성장하였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투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지속가능성 투자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속가능성 투자는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환경성, 경제성 및 사회성의 삼면(tripple bottom line)을 고려하고 있다.
1)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평가

1970년대의 경영 패러다임은 ‘내부비용 축소와 비용의 외부화를 통한 이익 창출’이었다. 그러나 제3세계에서의 인구증가로 자원부족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미래의 성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후반부터 유럽에서는 환경관련 법규의 제정이 확대되었으며 지속가능성이 소위 ‘미래의 산업’을 구별해내는 기준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지속가능성 기준에 의한 미래의 산업으로는 재활용에너지(renewable energy),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교육(education), 건강(health care), 수자원관리(water management) 및 폐기물관리(waste management) 등이 포함된다.

한편, 최근 들어 투자자들은 전략, 혁신, 지배구조, 주주, 종업원 및 기타 이해당사자 관계와 같은 분야에서 해당산업에서 모범사례(best practice)가 되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미국에서 회계부정으로 인한 기업의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기업 지속가능성 개념에 비추어 보면 전략, 혁신, 지배구조, 주주, 종업원 및 기타 이해당사자 관계와 같은 분야에서 best practice를 하고 있는 기업은 바로 기업 지속가능성 수준이 높은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업지속가능성 개념은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와 관련이 있으며, 지속가능성 정도가 높은 기업의 성과가 높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위 ‘지속가능성 투자’(sustainability investment)의 유인이 되고 있다.

한편, 환경친화적인 기업의 주식투자수익률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환경친화적인 기업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에코 펀드, eco-fund)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펀드의 확대와 더불어 환경친화적이라
는 평가가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기업은 환경 대책에 더욱 노력하여 환경문제 해결, 나아가 지속가능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은 장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는 투자에서 유효한 투자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기업보다는 지속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보다 예측가능한 성과를 나타내며, 갑작스러운 손실을 발생시키기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투자자들은 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경영평가의 척도로 사용하게 되었고 투자자들은 기업지속가능성을 주식투자시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게 되었다.

2) 지속가능성 관련 투자펀드

가. SRI 및 에코펀드의 개념

SRI(사회적 책임 투자,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는 사회적인 기여와 투자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투자수익에 다소의 손실을 보더라도 사회적 기여를 우선시하는 투자를 SRI라고 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윤리 투자(ethic investment), 환경 투자, 주주 활동(shareholder advocacy), 지역 사회 공헌 활동에의 투자 등이 포함되며,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투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투자신탁 또는 뮤추얼 펀드 등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행태를 취하고 있는 기업이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 환경 개선에 공헌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투자한 펀드 등을 SRI 펀드라고 지칭한다. 사회적 책임 투자는 1920년대 금주법하의 미국에서, 교회의 기금을 술·담배·도
박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에 반하므로 그런 산업에는 투자를 일체 금지하였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기업은 사회적 존재이며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SRI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미국에서는 단지 환경 및 윤리를 묻는 투자에 그치지 않고, 인권 문제와 소수 민족 문제를 배려하는 기업을 선택하여 투자하는 펀드 등이 정착되고 있다.

에코 펀드(eco fund), 또는 생태환경효율성 펀드(eco-efficiency fund)란 넓게는 지속가능성장의 개념에 근거한 투자펀드로서, 시가총액, 기업규모, 재무지표 등 전통적인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에 대한 배려를 평가에 가산하여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는 펀드를 지칭한다. 에코 펀드는 SRI펀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에코 펀드는 기업의 생태환경효율성(eco-efficiency)을 투자 판단의 척도로 활용한다. 세계 각국이 지구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공통으로 인식하면서, 기업의 환경 문제 대처 정도에 초점을 맞춘 SRI 형태의 에코 펀드가 199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 유럽, 오세아니아 및 아시아 등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나. 에코펀드의 등장 배경과 현황

에코펀드의 등장배경에는 20세기 후반 이후, 환경의식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20세기의 경제와 환경은 대량 생산·대량 소비·대량 폐기의 경제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익 또는 효율성만을 중시하고, 환경에 대한 배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 오염 등 공해·환경 문제가 확대되고 자연 파괴가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21세기 들어, 자연으로부터 체취하는 자원을 감소시
키고, 생산 및 소비에 있어 낭비를 축소하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즉, 21세기 들어, 최적 생산・최적 소비・최소 폐기기를 기초로 하는 소위 환경보전형 경제 사회를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와 환경의 양립(예를 들어, 자동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차의 연비와 수명 등을 향상시켜 환경효율을 높이는 것)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까지 기업에 있어 환경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며 이익에 공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각국 정부는 환경관련 법규제의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 가운데에서도 소위 그린소비자(Green Consumer)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소비자는 제품의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환경친화 상품을 구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소비 그린구매(Green 購買)에 관심이 높은 그린소비자(green consumer)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시작하였다. 일부 선도적 기업들은 법적 규제의 확대 및 그린소비자의 증가 등을 기회로 인식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환경 친화적 제품을 만드는 것이 경쟁우위를 갖게 하는 요인이라고, 특히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되어 경쟁력의 강화 및 시장 점유율에 확대에 연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규제와 소비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증권시장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특히 환경보존을 중요시하는 투자자그룹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자원의 보존과 같은 공익 목적으로 반영한 펀드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펀드를 에코 펀드라 하는데 에코 펀드는 1990년대 중반 처음으로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에코 펀드
유럽에서 1990년 CSFB증권이 처음 상품화한 이래, 현재 유럽의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는 1개 이상의 환경관련 펀드를 운용 중이며, 사회적책임투자(SRI)가 투자의 온리 관점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미 시장에 정착되어 있는 상황이다. 2001년 현재 미국의 경우 에코 펀드(미국의 경우 그린펀드)를 포함한 SRI의 규모는, 1995년의 6390억달러보다 4배 이상 성장한 30조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편, SRI 가운데 환경성과를 고려한 펀드에 대한 투자가 1997년에는 37%였으나 최근에는 79%로 증가하였다. 일본에서 1999년 닛코 증권이 “닛코 에코펀드”라고 하는 상품을 발매하는 등, 아시아권에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다. 에코펀드의 투자대상기업의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에코펀드의 투자 대상은 환경친화적인 기업과 혁신적인 환경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 또는 양자의 특성을 겸비한 기업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이용하여 투자대상기업을 스クリ닝(screening)한다.

- 기업의 환경보고서(environmental report)에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생태 환경관련 정보의 공개
- 기업의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의 적정성
- ISO14000과 EMAS와 같은 국제적 환경 감시 및 관리 기준(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의 환경친화기업, 산자부의 환경경영체계인증 등)을 준수하는 환경관리시스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의 도입 여부 및 환경관리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위한 노력의 정도
- 환경친화적, 생태계친화적인 상품 전략 유무
-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접근법을 통한 효과적인 비용 절감 여부
VI. 환경관련 금융상품

· 환경친화적인 자재조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여부
· 유럽에서는 기업의 이익창출에 어떠한 형태로든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PVC, 유전자 변형 기술 등이 관여되어 있으면 그 기업은 투자대상에서 제외

3) 기업지속가능성지수

가. 기업지속가능성 지수의 필요성

최근 들어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SRI의 규모가 연 7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연금펀드(pension funds)와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환경 펀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2000년 7월, “투자에 있어, 선택, 보유 및 투자실태에 있어서 사회, 환경이나 도덕에 대한 고려 범위를 연차보고서에 공개(disclosure)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Pensions and Investments Act 개정안을 공표하였다. 이와 같이, SRI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스크리닝, 일관적인 환경등급평가 environmental rating), 그리고 기업의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최종성과(triple bottom line)를 평가할 수 있는 벤치마크 등과 같은 사항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환경관련 파생금융상품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산 마련 및 지속가능 기업에 대한 투자펀드의 조성 등의 목적에서 투자자들은 지속가능성을 근거로 하는 지수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Dow Jones와 SAM은 1999년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그룹 지수(DJSGI, Dow Jones Sustainability Group Index)를 발표하였으며, 영국에서도 2001년 7월 10일, 환경적 지속가능성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이라는 개념과 연계된 FTSE4Good Index를 발표하였다.

나. 다우존스 지속가능성그룹지수

DJSGI는 DJGI(Dow Jones Global Index)에 포함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선도기업을 선발하여 구성하였다. DJSGI 선발 대상에는 전세계 에서 시가총액규모가 큰 2,000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DJSGI에는 64개의 산업군 각각에서 지속가능성 성과가 상위 10% 이내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표 13> DJSGI 구성기업 선발 과정

<table>
<thead>
<tr>
<th>Dow Jones Global Index</th>
</tr>
</thead>
<tbody>
<tr>
<td>시가총액이 큰 기업-2,000개</td>
</tr>
<tr>
<td>64개 산업</td>
</tr>
<tr>
<td>34개 국가</td>
</tr>
<tr>
<td>⇩</td>
</tr>
</tbody>
</table>

Component Selection

상위 10% 선두 지속가능성 기업

⇩

DJSGI

<p>| |</p>
<table>
<thead>
<tr>
<th></th>
</tr>
</thead>
<tbody>
<tr>
<td>231개 요소</td>
</tr>
<tr>
<td>61개 산업</td>
</tr>
<tr>
<td>27개 국가</td>
</tr>
</tbody>
</table>
DJSGI 지수 그룹은 다음과 같은 지역지수와 전문화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 지역지수(regional index)
  - DJSGI World index
  - DJSGI Europe index
  - DJSGI North America index
  - DJSGI Asia Pacific index
  - DJSGI USA index

- 전문화지수(specialized index)
  - DJSGI excluding Alcohol index(주류업체 제외)
  - DJSGI excluding Gambling index(도박관련 업체 제외)
  - DJSGI excluding Tobacco index(담배회사 제외)
  - DJSGI excluding All index(주류, 도박 및 담배회사 제외)

DJSGI 구성기업 선택은 매년 Dow Jones Global Index(DJGI)에 속해 있는 기업에 대해 기업 지속가능성 성과를 재평가하여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기업지속가능성 감시(Corporate Sustainability Monitoring) 그리고, 구성기업 순위결정(component ranking)과 선택(sel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선택된 기업에 대해서도 1년 내내 지속적인 감시를 수행한다.

기업지속가능성평가(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methodology)방법은 DJGI 투자가능 대상주식(investable stock universe) 가운데 각 산업에서 선도적인 기업을 식별하는 데 이용된다. 이 방법은 DJGI 투자가능 대상주식 가운데 각 기업을 경제, 환경 및 사회 차원에서 도출한 기회와 위험을 평가하는 특정한 기준의 적용에 근거하고 있다. 이 기준은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준과 특정산업에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기업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는 설문조사, 제출서류, 보고서 및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등이다. 또한, 언론보도와 투자자에 대한 정보 감시를 통해 기업의 중요한 사회, 경제, 환경 이슈와 상황대처와 관련된 경영능력을 평가한다. 일단 선택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기업 지속가능성 감시(Corporate Sustainability Monitoring)가 수행되는데 여기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 기업을 연간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제외시킨다. 평가의 질을 유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감사(external audit)와 정보 원천에 대한 이중 점검 등과 같은 내부 확인절차를 투입 자료, 평가 절차 및 결과의 정확성을 감시하고 유지하는 데 적용한다. DJSGI의 성과를 살펴보면, DJGI World는 1993년 대비 2000년 지수수준이 100.61%에 머물렀으나, DJSGI World는 140.98%에 이르렀다. 한편, 위험-수익률 관계에서도 DJSGI는 MSCI World 및 DJGI World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FTSE4Good Index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와 영국의 경제신문인 Financial Times에 의해 설립되어 영국의 주가지수를 관리하는 FTSE는 2001년 7월 10일, 기업 지속가능성에 근거한 FTSE4Good 지수(index)를 발표하고 이 지수에 근거한 FTSE4Good UK Fund를 발매하였다. FTSE4Good 지수는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을 위한 노력, 이해관계자 관계 개선 노력(positive relationships with stakeholders), 전반적인 인권 보호지지(universal human right)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선별된 기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FTSE4Good에는 현재 SRI 실행관습에 근거하여 담배제조, 무기제조
6. 환경관련 금융상품

지수화된 환경성과 관련된 기업들은 지수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현재 이 지수는, 영국, 유럽, 미국 및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하부 지수가 개발되어 투자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4) 각국의 에코펀드 현황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 관련 펀드는 사회적 또는 환경적 목표를 강조하기 위해 투자수익률에서의 손실을 감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로 환경을 강조하는 에코 펀드 가운데는 환경 효율성과 동시에 시장(market) 또는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펀드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즉, 거의 모든 에코 펀드는 환경성과 (environmental performance)와 더불어 재무성과(financial performance)를 투자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펀드는 판매대상과 판매지역이 제한적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펀드는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 모두에게 판매되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제국에서는 에코 펀드의 수가 연 100% 증가하고 있는 등 에코 펀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999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에코펀드가 발매되었으며, 2000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최초의 에코펀드가 발매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에코 펀드는 유럽에서 발매되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유럽의 투자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펀드의 투자성과를 살펴보면, 많은 펀드들이 벤치마크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에코 펀드들은 국제 분산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펀드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및 캐나다 등과 같은 5~8개국의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펀드들은 환경 선도기업(environmental leader)으로 인지되는 기업 가운데 50개 이내의 기업에 집중하여 투자하고 있다. 다수의 펀드는 대형기업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몇몇 펀드는 환경문제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형기업에 대해서도 투자하고 있다. 대부분의 펀드는 특정 섹터에 대한 투자를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으며 벤치마크에 따라 자산을 할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펀드는 주식펀드(equity fund)인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들의 환경기준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펀드들은 섹터 또는 산업별 환경선도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투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해당 산업 내에서 환경이슈에 대한 가장 진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통적인 재무기준에서도 우수한 기업으로 나타났다. 한편, 몇몇 펀드는 환경과 더불어 지속가능성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신규로 설립된 몇 개의 펀드는 환경선도기업 선정에서 특정 산업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은 투자대상에 소위 “dirty or brown” 산업 내에서의 최우수 기업(best-in-class)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적인 환경 또는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 전략과는 차별화된 것이다.
Ⅶ.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도입

1. 환경위험관리 시스템의 원칙

이 절에서는 특히 미국에서의 CERCLA와 같은 대부자 책임이 부과되는 규제하에서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시스템의 원칙에 대해 논의한다. 물론 이러한 원칙은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명시적인 대부자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환경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위험관리의 원칙은 금융회사의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 또는 환경위험매뉴얼(environmental risk manual)에 기술된다. 환경위험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1993년의 FDIC 지침(FDIC Guidelines)에 잘 요약되어 있다.

1) FDIC 지침의 주요 내용

CERCLA 등에 의해 대부자 위험이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문제로 부각되자 FDIC는 1993년 CERCLA로 인한 환경책임에 초점을 맞춘 “환경위험관리를 위한 지침”(Guidelines for an Environmental Risk Program)을 발표하였다. FDIC 지침은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프로그램은 해당 금융회사의 수요에 맞추어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환경위험을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상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FDIC 지침은 주택대출, 상업대출, 부동산대출 및 신탁 영업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모든 형태의 거래에 대해 구조화된 리스크 평가(structured risk assessment) 수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리스크 평가는 대출신청 과정에서 수행되어야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로서도 수행되어야 하며 채무재조정 상황 및 유저당(foreclosure)에서도 실시되어야 한다. 지침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고객의 사업 경영에 관여(participation in management)하기 전에 환경책임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는 특히, 부실화되거나 워크아웃 상황에 있는 차입자에 대해서는 더욱 중요하다. 지침에 개략적으로 설명된 구조화된 리스크 평가 과정에는 특히 거래에 대한 스크리닝(transaction screen)과 1단계 조사 (Phase I investigation)이 포함되어 있다.

가. 감시(모니터링)

리스크 평가는 대출의 만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데, 환경적 측면에서 부동산 담보와 차입자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만일 환경 문제가 발견되면, 차입자에게 환경문제 해결 요구 권한을 행사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이사회 승인

최고경영자의 승인 및 이사회의 승인 획득은 효과적인 환경리스크관리 프로그램 구축의 일부분이다. FDIC 지침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이사회는 환경리스크관리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하며 환경문제에 전문성을 보유한 관리자를 프로그램 실천 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다. 교육 훈련

FDIC 지침은 비전문 직원의 환경위험 분석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에 대한 환경문제 교육 훈련이 금융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침은 환경위험관리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 문서화

FDIC 지침은 금융회사들은 대출 관련 문서의 표준화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 문서에는 프로그램 실천 방법과 해당 금융회사 자체 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의 준수 방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지침은 또한 잠재적인 환경손실과 책임으로부터 해당 금융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용어들을 대출 서류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마. 집행

특히 지침은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 및 투자 활동의 한 부분으로 해당 기관의 환경위험프로그램을 검토할 것이라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개별적인 대출을 검사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 환경위험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있는가도 검사의 대상이 된다.

2) 환경정책의 마련

환경위험관리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 계획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도입 방안

(planning), 실행(implementation) 및 감시(monitoring)로 구성된다. 환경위험관리시스템의 각 단계 가운데 환경정책에는 금융회사 내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우선순위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며, 직원,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환경정책의 주기능은 금융회사가 환경보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대한 중요성, 환경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 환경성과(environmental performance)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각종 환경 이슈에 대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고 뒷받침하는 것이다.

환경정책은 대출 포트폴리오, 신통 영업, 금융회사 소유 시설 관리자와 여신심사 담당자들이 항상 참고하는 문서이어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신용공여 기관은 환경정책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기관은 해당 금융회사의 환경 관련 기준을 회피하려는 차입자에 대해 영업에서 실질적으로 환경정책을 이용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다.

환경정책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환경정책은 직접 이용 가능한 준비된 문서가 되어야 한다. 환경정책은 이사회 수준에서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사회는 이러한 승인 사실을 여신심사 담당자와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금융회사는 모든 여신심사 담당자들이 협조하도록 환경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여신심사자와 관련 직원들은 환경정책의 이용에 대해 완벽하게 훈련되어야 하며 이를 전파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환경정책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매우 중요하다. 정기적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 환경정책은 은행의 환경책임을 확대하거나 경감하는 새로운 규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환경정책 또는 환경위험매뉴얼의 작성은 이사회에서 정책 채택을 승인받기 위해서 팀 차원에서의 노력을 필요하다. 내부 팀은 환경정책 담당 직원과
환경 이슈의 영향을 받는 해당 금융회사의 주요부서의 대표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외부 구성원에는 환경법 전문가와 환경 컨설턴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위험 부담 수준의 결정은 이사회가 결정하여야 한다.

3) 환경정책의 내용

환경정책 또는 환경위험매뉴얼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하는데는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다. 특히 여신기관에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책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이다. 이는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혹은 그 밖의 국가에서 CERCLA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대부자 책임과 관련이 있다. CERCLA에 의하면 모든 적합한 절의는 부동산 매수에서 실사(due diligence) 과정의 표준이 된다. 모든 대출기관은 부적합한 의사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대부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경제적 이슈는 담보의 잠재적 손실 및 제3자의 법적 행위에 대한 잠재적 노출 등이다. FDIC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정책 또는 환경위험매뉴얼을 개발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정책의 주요 항목에는 위험과 보상에 대한 배경 정보, 환경실태에 대한 배경 정보, 환경정책 설명서, 컨설턴트 및 훈련, 평가 절차, 특정 산업에 대한 자료, 문제 자산, 용어 해설 등이 포함된다. 주요 항목에는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정책이 근거하고 있는 철학, 규제, 그리고 환경책임의 실제적인 영향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위험과 보상에 대한 배경 정보

환경위험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상당히 악화시킬 수 있는 책임 또는 재무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고객의 손실은 대부자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기회 상실, 현금흐름 악화 또는 파산, 또는 담보가치의 하락과 환경오염 정화 비용이다. 환경적인 이슈로 인해 대출이 빠른 시간 내에 회수되지 못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신규 대출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오염된 장소를 정화하거나 규제당국의 손인을 얻는 것 등으로 환경 문제 또는 이슈는 현재의 사업 기회, 계획 중인 프로젝트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을 지연시키거나,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이들의 경제적 가치를 축소시킬 수 있다. 대손충당금의 증가, 대손상각, 담보에 대한 우선권의 상실, 직접적인 환경책임, 그리고 환경관련 인허가의 취득 필요 등 환경문제가 대출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는 다양하다. 환경문제는 현금흐름을 위축시키고 담보가치를 손상시키며 신용위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대출기관이 만일 규제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환경문제를 야기한 차입자의 사업에 대한 운영자(operator)로 판정받거나, 담보 확보를 위해 오염 부동산을 획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환경문제 발생 원인과는 상관없이 직접적인 환경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정부나 시민단체 등에 의한 소송도 있을 수 있다. 환경책임은 정화비용에 한정되지 않고 관리비용, 벌금,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 복구까지 확대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보험은 아직 충분치 않은 상황이며 따라서 위험 축소를 위한 환경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과학적 문제와 관련된 책임에 대한 법적 문제와 실사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CERCLA에서의 핵심 개념은 사업의 운영자 및 소유자는 오염에 대해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을 부담하며, 오염 책임은 오염자와는 관계없이 연대 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이며, 책임은 소급적(retroactive)이다. CERCLA 및 판례에 의하면,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는 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저당권 행사, 또는 저당권 행사 대신 양도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등 현재의 소유자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자는 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취급하는 잠재적 매수자 및 대부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환경 조사 형태, 즉, 환경현장평가(environmental site assessment), 또는 환경감사(environmental audit) 방법을 개발하여 “모든 적합한 질의”(all appropriate inquiry)의 의미를 적절히 정의하여야 한다. "모든 적합한 질의” 법칙을 만족시키는 환경조사 형태로서의 실사의 중요성은 명확하다.

다. 환경정책 성명문(policy statement)

신용공여의 유형과 크기별로 금융회사에 의해 요구되는 실사 또는 조사의 정도를 정의하기 위한 환경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정책은 환경책임으로부터 금융회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환경정책에는 특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환경정책은 해당 금융회사의 기업철학과 위험 허용 정도가 반영되어 작성된다. 또한, 환경실사와 금융
회사가 허용할 수 있는 위험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제시하여야 한다.

환경정책 성명문에 채택된 기본적인 환경실사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환경실사 방법은 ASTM 표준에 정의되어 있다. 여기에는, 체크리스트(checklist), 거래스크린 과정(transaction screen process), 1단계 환경현장평가(phase I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 환경현장평가의 추가적 단계, 그리고 환경감사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 기관의 환경정책에서, 체크리스트는 기관내의 비전문 직원에 의해 수행되나, 그 외의 단계는 내외부의 환경전문가에 의해 수행된다.

라. 평가 단계

부동산 및 산업 대출은 환경책임 또는 간접신용위험 측면에서 면밀히 평가되어야 한다. 평가 프로그램은 부동산, 인수, 고위험사업체에 대한 신용면에서 포함한 모든 거래에 적용되어야 한다. 개략적인 접근법은 환경책임 부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동산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환경실사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환경실사를 통한 조사 유형은 기초적인 스크린 과정에서 거래스크린 프로세스, 1단계 환경현장평가, 환경감사 등 단계에 따라 보다 세밀해지며 또 복잡해진다. 고객이 환경정책 준수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은 실사의 내용이 복잡해질수록 상승한다. 환경정책은 직접적으로 환경실사의 유형과 범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환경실사는 환경책임 노출을 제한하는 거래에 대한 사전 조사로서 엄격히 정의되어야 한다.

체크리스트 방법은 교육받은 내부 직원에 의한 초기 실사 평가와 관련이 있다. 실제 체크리스트는 금융회사 내부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거래
스크린 과정(transaction screen process, TSP)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 TSP는 체크리스트 다음 단계로서 현장에서의 환경책임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와 관련자 면접 결과 등에 주로 의존하는 예비적 조사이다. TSP 조사는 사전에 금융회사에 의해 전문성이 인정된 환경전문가 또는 컨설턴트에 의해 실시된다. TSP로부터 얻어지는 주요 내용은 완성된 체크리스트와 현장에 대한 컨설턴트의 의견서이다.

1단계 환경현장평가(Phase I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 Phase I ESA)는 잠재적인 환경위험을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주요 실사 조사 방법이다. 1단계 ESA는 환경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며 부동산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기술적인 조사이며 이의 결과로서 조사보고서가 제출된다. 여신심사담당자와 고객에게 ESA가 필요하며 이는 해당 금융회사가 인정한 컨설턴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빠리 고지하여야 한다. 환경감사는 환경과 관계 깊은 사업체에 대한 완전한 조사이다. 이 유형의 조사는 일반적으로 환경준수감사(environmental compliance audit) 또는 운영감사(operational audit)라고 지칭된다. 실사 방법의 선택은 대출의 규모 및 유형, 담보의 위치, 그리고 고객의 사업 또는 부동산에 대한 해당 금융회사의 관여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마. 특정산업에 대한 문서화

환경과 관련된 합의 또는 조항은 여신의 조건으로서 대출 금융회사가 차입자에게 요구하는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환경 특약은 운영 시설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특약은 차입자가 환경법을 준수하고 금융회사의 담보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수합병이나 다른 경영
활동에서 실사를 실행할 것이라는 것을 금융회사에 보장해 준다.

환경준수 측면에서 신용 확대를 감시하는 것은 환경위험관리의 중요한 요소이다. 감시는 대출기관이 차입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완수되어야 한다. 환경정책에 정의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감시에는 신용 확대를 위해 사용되는 실사와 동일한 위험 매트릭스(risk matrix)가 그대로 이용되어야 한다. 위험 매트릭스에는 고위험 활동과 관련된 특정 산업 분류가 열거되어 있다. 감시는 차입자가 어떻게 환경위험을 관리하려는지, 사용되는 방식이 현행 환경 규제에 부합하는지에 근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바. 문제자산

대출 금융회사의 담보권 행사나 영업 양수 등은 위험 노출을 확대시킨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은 CERCLA에 정의되어 있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된다. 순수한 채권 확보 유지 노력은 최소한의 책임만을 야기한다. 위크아웃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출기관이 운영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해결책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지 않거나 대부자의 환경책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환경실사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영업 양수와 같은 형태의 행동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마다, 해당 기관의 환경정책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이 고지되어야 하며 정책담당자는 문제 해결 전략 수립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2. 환경위험관리 전략의 개발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회사가 여신공여시 노출되는 환경위험은 직접위험, 간접위험 그리고 평판위험 등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직접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기 전에 적절한 환경실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직접 책임위험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정부, 고객 및 주주 등에 의해 환경위험관리를 시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명문화된 환경책임 규정이 없으며 선진국에서와 같이 환경위험관리에 대한 요구도 크지 않은 편이다.25) 이러한 환경하에서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환경책임을 위험의 원천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25)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화산 키메탈사건도 환경책임, 특히 대부자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도입 방안

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여신심사시 반드시 환경위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국제금융사회의 일원으로서 환경위험관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 명시적인 대부자 책임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환경위험관리 원칙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는 명시적인 직접위험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 효과적인 환경위험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환경위험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환경위험정책(환경정책) 또는 환경위험매뉴얼의 마련이다. FDIC 등의 규제에 의해 모든 미국 대출기관은 서면으로 작성된 환경위험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위험정책의 내용에는 위험과 보상에 대한 정보, 환경실탯에 대한 정보, 직원 교육, 컨설팅, 문서화, 그리고 문제 자산 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효율적인 환경위험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는 대출포트폴리오 관리 전략, 환경위험 가격결정 개요(environmental risk pricing scheme) 및 교육훈련 계획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가운데 여신에서 환경위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융회사도 환경위험을 인식하여야 하며, 규제당국도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경위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있을 수 없다. 또한, 환경위험의 인식이 금융회사와 차입자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고객들이 환경위험의 인식을 거래조건 악화, 여신 공여 거부의 원인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규제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환경위험관리 규제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 수퍼펀드법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CERCLA는 환경책임에 대한 강력한 조항으로 말미암아 여신에서 소위 대출거부요소(chill factor)로 알려졌고, 이 요소로 말미암아
당시 미국의 은행들은 환경책임의 부담을 우려하여 고환경위험 산업에 대한 여신을 모두 중지하였다. 환경위험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미국에서와 같이 과도한 비용을 소요하는 chill factor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북미와 유럽의 대부분의 은행은 환경위험관리를 도입하고 있으며 남미와 아시아와 같은 3세계의 수 개국 은행도 UNEP 금융회사 환경선언에 조인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수의 금융회사가 이에 참여하였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도입의 첫 단계는 우선 UNEP 선언문에 조인하는 것이다. UNEP 금융회사 선언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통상적인 위험평가 및 관리의 과정으로서 환경위험을 인지하고 계량화 한다.
□ 환경관리의 발전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여신 관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한다.
□ 환경정책 성명문을 개발하고 발표한다.
□ 주주, 직원, 고객, 정부 및 일반 대중 등을 포함한 적절한 관계당사자에게 환경 이슈를 전달한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UNEP 선언문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환경위험관리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환경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이 미국의 정책처럼 엄격할 필요는 없으나 환경정책에는 실사, 교육훈련,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매년 환경보고서(environmental report) 또는 지속가능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를 발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환경정책

최근 환경은 금융사를 포함한 모든 영역의 모든 기업에게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NGO의 압력 및 규제 등으로 모든 금융사는 지속가능 발전을 건전한 경영의 근본적인 측면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금융사들은 뱅킹, 금융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경영관리와 같은 핵심 활동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사는 특히 여신 분야에서 환경위험을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통합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우선적으로 여신심사에서 환경위험평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이후 그 결과를 확산해나가야 한다.

경영과 관련하여서는 금융사는 목표, 프로그램 및 감사범위를 포함하는 환경관리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인 환경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금융사는 UNEP 선언문과 같은 규제 당국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아가, 금융사는 환경의 원칙을 내부 의사소통 및 교육훈련에 통합하여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자와 활발한 의사전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금융사들은 독립적인 연차 환경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금융사는 환경시장에서의 기회를 이용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규제 현황을 고려할 때 에코 펀드(eco fund)와 같은 자산관리 부문에서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은행에서 환경친화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사는 특히 여신에서의 환경이슈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의 실행은 지속적인 개선의 과정이어야 한다. 환경정책상의 목표가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환경정책의 내용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환경정책은 환경위협이 적절히 인식되고 평가되었는가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환경정책은 기존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접근 방식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위험평가과정의 가치가 제고되도록 기존의 위험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특정 금융회사에 적합한 환경정책의 범위와 유형은 현재의 대출 포트폴리오, 위험허용도 및 향후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환경실사

환경실사는 환경책임의 면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명확한 환경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환경실사는 중요하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 문제가 대출업의 자금흐름을 악화시키고 대출상환능력을 축소시키는 등 간접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환경 실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환경실사는 환경정책의 평가를 위한 여러 단계의 절차로 구성되는데, 환경실사는 다른 실사작업과 거의 유사하다. 내부문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행정관청에 제출한 서류, 공공기록, 소유권이전 문서 및 회사의 운영경력에 대한 각종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주된 일이다. 환경실사의 단계는 국가별로 또는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통상 미국의 ASTM에서의 절차가 적용되며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인수합병에서 마찬가지 절차가 적용된다. ASTM은 환경실사의 단계를 거래스크린 체크리스트(Transaction Screen Checklist), 1단계 환경현장평가, 2단계 환경현장평가(또는 환경감사)로 구분한다. 이러한 절차는 내부 전문가에 의해 실행될 수도 있고 외부 기관에 위탁될 수도 있으나 적어도 환경현장
평가와 환경감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진다.

3) 환경위험 가격결정

환경위험은 여신 결정 과정에서 모든 신용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환경위험 평가 과정은 고객과의 상담 및 환경위험의 인식으로 구성된다. 고객과의 상담에서 여신심사담당자는 잠재적인 환경 기회와 위험을 논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통상 체크리스트와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한다. 만일 환경위험이 식별된다면 이는 내부 신용 담당자와 협의되어야 하며 여신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환경위험의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금융회사는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환경위험관리 조직의 역할은 환경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축소시키는 것이며 환경위험의 가격결정 정책에 조언을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여신의 위험조정가격 산정에는 부실화에 따른 비용, 자본비용, 그리고 인가 및 통제비용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부실화에 따른 비용은 고객의 신용도, 부도시회수율 등에 따라 결정된다. 신용등급에 의해 측정되며 고객의 신용도는 내부시스템 또는 외부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되는 객관적인 부도확률의 평가이다. 부도시회수율은 담보의 실현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환경 이슈를 반영하고 있는 가장 현저한 가격결정 방법은 환경친화적인 투자를 보조하는 특별 대출 계획의 성장에 따라 이루어졌다. 많은 선진 금융회사는 그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에 인식하여 소위 녹색 대출 (green loan)이라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 상품은 기업이 친환경적 투자를 하도록 금리를 인하하고, 수수료를 낮추고 나아가 시설 개선시 현금환불도 실시하고 있다.
만일 환경위험의 가격결정이 쉽지 않다면, 환경위험 통제수단으로 보험이 이용될 수 있다. 보험회사는 환경피해로 인한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고안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조차 환경위험을 완전히 부담하는 보험은 아직까지 없다. 이와 같은 보험상품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찾기 쉽지는 않으나 미국시장에서는 물론 국제시장에서 유사한 상품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4) 직원 총원 및 교육훈련

아직까지 미국, 스위스, 영국 및 독일의 주요 은행만이 환경위험관리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 인력 총원에 대해 접근법은 매우 다양하다. 환경위험관리 조직의 규모는 금융회사의 대출 포트폴리오의 크기, 위험관리에 대한 태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시스템의 자동화를 통해 환경위험관리 전담 조직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환경위험관리가 위험관리의 한 부분이며 환경위험관리는 모든 위험관리 담당자가 숙지하여야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들 주요 은행에서도 다수 전문 직원으로 총원된 조직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환경위험관리 조직 총원 전략은 조직의 구성과 지원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전략은 환경 컨설팅에 전문성이 있으나 금융 분야의 위험관리에는 경험이 없는 기술적인 전문 인력을 총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외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위험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내부적으로 환경위험관리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에서는 우수한 환경 컨설팅 회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내부적으로 환경위험관리
리기법을 개발하는 것은 경험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금융회사들은 두 번째 전략과 세 번째 전략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문성을 갖춘 환경 컨설팅 회사가 비교적 충족

<표 14> 환경위험 평가

<table>
<thead>
<tr>
<th>질문</th>
<th>Yes</th>
<th>No</th>
</tr>
</thead>
<tbody>
<tr>
<td>고객이 기업의 환경위험 분야에서 영업하고 있는가?</td>
<td></td>
<td>환경위험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등에서의 환경위험을 고려하여야 함.</td>
</tr>
<tr>
<td>기업에 환경위험을 위해 충분한 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td>
<td></td>
<td>정책 요구사항을 준수함.</td>
</tr>
<tr>
<td>고객의 원자재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이슈가 있는가? 그들의 고객으로부터 환경적 압력을 받는가?</td>
<td></td>
<td>효율성을 검토</td>
</tr>
<tr>
<td>공식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갖고 있는가?</td>
<td>Yes</td>
<td>- 법적 소송이 있는가?</td>
</tr>
<tr>
<td>- 자본적 지출 소요액</td>
<td></td>
<td></td>
</tr>
<tr>
<td></td>
<td>No</td>
<td>- 비용은 얼마가 될 것인가?</td>
</tr>
<tr>
<td></td>
<td></td>
<td>- 환경감사보고서의 권고안</td>
</tr>
<tr>
<td></td>
<td></td>
<td>- 자본적 지출 소요액</td>
</tr>
<tr>
<td>다음 요소를 고려한 환경정보의 평가</td>
<td></td>
<td>여신 문서에 적절한 조항의 삽입</td>
</tr>
<tr>
<td>- 자본적 지출 소요액</td>
<td></td>
<td></td>
</tr>
<tr>
<td>- 환경법 준수 정도</td>
<td></td>
<td></td>
</tr>
<tr>
<td>- 경제적 환경 책임</td>
<td></td>
<td></td>
</tr>
<tr>
<td>일시 상환 대출이 신청되었는가?</td>
<td>Yes</td>
<td></td>
</tr>
<tr>
<td></td>
<td>No</td>
<td></td>
</tr>
<tr>
<td>다음의 위험 감축 수단을 고려</td>
<td></td>
<td></td>
</tr>
<tr>
<td>- 환경감사 등에 의한 전문가 의견 취득</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 환경보험의 적절성</td>
</tr>
<tr>
<td></td>
<td></td>
<td>- 오염이 확인된 경우 경감 수단 이용 가능성</td>
</tr>
</tbody>
</table>

자료: Case(1999).
分히 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환경 위험관리를 외부 기관이 담당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위험관리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시스템에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경위험이 향후 핵심적인 위험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내부적인 관리기법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5) 환경 이슈에 대한 의사소통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금융회사의 환경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보고서 또는 지속가능보고서는 여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환경보고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환경보고의 이점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는 실현된 재무적 이익을 통해 위험의 적절한 통제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주식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본 보고서를 비롯하여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두 번째는 전략적 이익으로 환경활동에 대한 보고는 NGO 등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개선시켜 해당 기관의 평판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

환경보고서는 전반적 정보, 환경위험관리, 상품의 생태 관련성, 재무관리 그리고 이해관계자 관리 등을 포함한다. 전반적 정보는 해당 기관의 운영, 보고서의 범위, 환경위험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서약과 관련한 CEO 성명이 포함된다. 환경위험관리의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환경전략과 방법 및 환경위험관리 조직에 관한 것이다. 상품의 생태 관련성은 해당 기관이 개발한 환경상품 및 서비스 등이다. 재무관리는 환경관리와 관련된 위험, 책임 및 수익 등이 반영된다.
3. 우리나라 금융회사를 위한 환경위험관리매뉴얼 예시

모든 여신에 대해 환경위험을 분석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이다. 이러한 분석은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 또는 해당 금융회사의 이해가 걸려있는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위험에 적용된다. 일반적인 정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프로그램의 목적
□ 환경위험분석 정책
□ 환경위험관리 정책
□ 교육훈련 정책
□ 프로그램의 책임

1) 프로그램의 목적

환경위험관리 프로그램은 금융회사의 여신 건전성을 보호하고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회사의 이해가 거래 담보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UNEP 성명문 등에서의 지침을 준수한다.

2) 환경위험분석 정책

환경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자산을 식별하기 위해 담당자는 세심하게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출신효자와의 인터뷰, 환경 문제와 관련된 여신 및 신탁자산 문서의 검토 그리고 대출신효자의 영업장, 담보 현장의 직접 방문
등은 보다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환경위험에 대한 정보를 명시하는 여신 문서에서의 조항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여신 또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가 수행된다.

가. 부동산이 관련된 대출

보유 부동산 또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환경 상태는 적합한 환경위험 분석 절차를 이용하여 평가된다.

□ 이러한 절차가 적용되었다는 근거는 문서화되어 적절한 서류에 포함된다.
□ 위험분석은 대출 갱신 또는 담보 취득 이전에 수행된다.

나. 무담보 대출

차입자의 특성과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되는 절차에는 차입자의 현 금흐름 또는 대출 상환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위험이 존재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차입자의 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이러한 절차가 적용되었다는 근거는 문서화되어 적절한 서류에 포함된다.
□ 위험분석은 대출 갱신 또는 담보 취득 이전에 수행된다.

3) 환경위험관리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에 대해, 정기적으로 환경위험에 관한 정보의 경신,
환경위험에 대한 현장 조사 허용, 여신 연장 및 크레딧 라인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 등을 위해 적합한 규정이 이용될 수 있다. 또한 환경 규정 위반이 담보가치를 손상시키거나 대출상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출 만기일을 앞당기거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적용할 수 있다.

부실여신 또는 문제 자산에 대한 위크아웃의 경우, 환경위험 측면에서 담보 가치와 운영 상황을 보다 틀리게 감시하여야 한다. 담보권 취득으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의사결정에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잠재적인 환경책임 측면에서 담보의 가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4) 교육·훈련

환경위험을 관리하는 모든 여신심사 및 평가 담당 직원은 차입자의 특성 및 신용도와 부동산의 가치와 관련된 환경 이슈의 영향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5) 책임

해당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는 환경정책에 의해 규정된 정책, 절차 및 교육 프로그램의 문서화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모든 절차, 교육 프로그램 및 문서화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검토되어야 하며 최고경영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정책의 변동을 최종 승인하는 책임은 이사회가 부담하며 이사회 의장에 의해 정책은 매년 검토된다.
I. UNEP Statement by Financial Institutions on the Environment & Sustainable Development

We members of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recognize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depends upon a positive interaction betwee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o balance the interests of this and future generations. We further recognize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is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business, and individuals. We are committed to working cooperatively with these sectors within the framework of market mechanisms toward common environmental goals.

1.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1.1 We regard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fundamental aspect of sound business management.

1.2 Believe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can best be achieved by allowing markets to work within an appropriate framework of cost-efficient regulations and economic instruments. Governments in all countries have a leadership role in establishing and enforcing long-term common environmental priorities and values.
1.3 We regard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as an important contributor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sociation with other economic sectors.

1.4 We recognize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is a corporate commitment and an integral part of our pursuit of good corporate citizenship.

2.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Financial Institutions

2.1 We support the precautionary approach to environmental management, which strives to anticipate and prevent potential environmental degradation.

2.2 We are committed to complying with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applicable to our operations and business services. We will work towards integrating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to our operations, asset management, and other business decisions, in all markets.

2.3 We recognize that identifying and quantifying environmental risks should be part of the normal process of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both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operations. With regard to our customers, we regard compliance with applicable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he use of sound environmental practices as important factors in demonstrating effective corporate management.
2.4 We will endeavor to pursue the best practice in environmental management, including energy efficiency, recycling and waste reduction. We will seek to form business relations with partners, suppliers, and subcontractors who follow similarly high environmental standards.

2.5 We intend to update our practices periodically to incorporate relevant development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We encourage the industry to undertake research in these and related areas.

2.6 We recognize the need to conduct internal environmental reviews on a periodic basis, and to measure our activities against our environmental goals.

2.7 We encourage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to develop products and services which will promote environmental protection.

3. Public Awareness and Communication

3.1 We recommend that financial institutions develop and publish a statement of their environmental policy and periodically report on the steps they have taken to promot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to their operations.

3.2 We will share information with customers, as appropriate, so that
they may strengthen their own capacity to reduce environmental risk and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3.3 We will foster openness and dialogue relating to environmental matters with relevant audiences, including shareholders, employees, customers, governments, and the public.

3.4 We ask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to assist the industry to further the principles and goals of this Statement by providing, within its capacity, relevant information rela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3.5 We will encourage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to support this Statement. We are committed to share with them our experiences and knowledge in order to extend best practices.

3.6 We will work with UNEP periodically to review the success in implementing this Statement and will revise it as appropriate.

We, the undersigned, endorse the principles set forth in the above statement and will endeavor to ensure that our policies and business actions promote the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I. Statement of Environmental Commitment by the Insurance Industry

The insurance industry recognizes that economic development needs to be compatible with human welfare and a healthy environment. To ignore this is to risk increasing social, environmental and financial costs. Our Indust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naging and reducing environmental risk, in conjunction with governments,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We are committed to work together to address key issues such as pollution reduction, the efficient use of resources, and climate change. We endeavour to identify realistic, sustainable solutions.

1. General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1.1 We regard sustainable development, defined a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as a fundamental aspect of sound business management.

1.2 We believe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is best achieved by allowing markets to work within an appropriate framework of cost efficient regulations and economic instruments. Government has a leadership role in establishing and enforcing long term priorities and values.

1.3 We regard a strong, proactive insurance industry as an important
contributor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its interaction with other economic sectors and consumers.

1.4 We believe that the existing skills and techniques of our industry in understanding uncertainty, identifying and quantifying risk, and responding to risk, are core strengths in managing environmental problems.

1.5 We recogniz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at it is not possible to quantify some concerns sufficiently, nor indeed to reconcile all impacts in purely financial terms. Research is needed to reduce uncertainty but cannot eliminate it entirely.

2. Environmental Management

2.1 We will reinforce the attention given to environmental risks in our core activities. These activities include risk management, loss prevention, product design, claims handling and asset management.

2.2 We are committed to manage internal operations and physical assets under our control in a manner that reflects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2.3 We will periodically review our management practices, to integrate relevant developments of environmental management in our planning, marketing, employee communications and training as well as our
other core activities.

2.4 We encourage research in these and related issues. Responses to environmental issues can vary in effectiveness and cost. We encourage research that identifies creative and effective solutions.

2.5 We support insurance products and services that promote sound environmental practice through measures such as loss prevention and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While satisfying requirements for security and profitability, we will seek to include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 our asset management.

2.6 We will conduct regular internal environmental reviews, and will seek to create measurable environmental goals and standards.

2.7 We shall comply with all applicabl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Beyond compliance, we will strive to develop and adopt best practice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We will support our clients, partners and suppliers to do likewise.

3. Public Awareness and Communications

3.1 Bearing in mind commercial confidence, we are committed to share relevant information with our stakeholders, including clients, intermediaries, shareholders, employees and regulators. By doing so
we will improve society’s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llenges.

3.2 Through dialogue with public authorities and other bodies we aim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more effective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3.3 We will work with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to further the principles and goals of this Statement, and look for UNEP’s active support.

3.4 We will encourage other insurance institutions to support this Statement. We are committed to share with them our experiences and knowledge in order to extend best practices.

3.5 We will actively communicate our environmental activities to the public, review the success of this Statement periodically, and we expect all signatories to make real progress.
부록 B : 환경실사의 단계

환경실사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문서 조사 및 문의(행정기관에의 제출서류 검사 및 개개인의 면접 등)이고 둘째는 환경감사 즉 현재와 과거에 환경적 위험을 유발하게 했던 현장에서의 행위 여부 및 보다 더 철저한 현장검증이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이다. 이 두가지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중복되는 사항이다. 예컨대 대부분의 환경감사 침천하셨던 첫 단계 현장감사의 일부로 피인수회사의 라이센스나 허가 중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똑같은 정보가 실사팀에 의해 수집되어 검토될 것이며, 환경감사팀은 환경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평가가 주된 작업이고 법률적인 평가는 실사팀에서 종합적으로 행해진다.

환경실사의 첫번째 단계는 실사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실사팀(더 정확히 말하자면 선택된 팀의 멤버들)은 문서 조사와 관련 문의를 하는데 여기에는 피인수회사가 각종 환경규제 및 허가규정 등을 준수했는가에 대한 기록과 행정기관의 서류 및 대상부지의 과거 이용에 대한 평가가 따른다. 실사팀은 환경감사의 수행을 감독하고 결과를 평가한다. 실사의 초기단계에 고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다른 전문가와의 협의 하에 환경감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환경감사는 점차 환경실사에서 비선택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다만 기업의 인수·합병시에 기존의 환경감사자료가 있다면 피인수기업이 추가적인 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장을 계약서상에 명기함으로써 새로운 환경감사가 면제될 수 있을 것이다.

과정상으로 말한다면 환경실사 과정은 보다 광범위한 실사의 과정과 유사

---

하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팀의 성과를 요약한 문서는 특정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여 고문 변호사에게 제출되어 심사된다. 마찬가지로 환경감사팀의 진행상황과 결과물들은 실사팀에 의해 감독되며 중대한 정보는 정규적으로 고문 변호사에게 전해진다. 실사팀에 의해 발견된 모든 중대한 행위(material act)나 연관되는 사항들은 문서화되어져 최종적으로 환경실사의 결과물은 다른 실사의 심사결과와 함께 실사개요(due diligence compendium)에 포함된다.

가. 문헌조사 및 관련 문의

환경실사에 있어 문서조사 및 관련 문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이 수행한 모든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를 캐내는 수단이다. 그것은 피인수회사의 내부문서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서는 안되며 추가적인 정보의 조사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관련문의”(related inquiries)이다. 조사초기에 실사담당 변호사는 환경과 관련한 피인수회사의 내부문서 모두를 요구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문서들은 자료실(data room)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나 별도의 추가적인 요구 리스트를 제출해야 할 경우가 생길 것이다. 그러한 리스트에는 대개 아래의 문서들이 포함된다.

- 과거에 수행한 환경감사
- 각종 허가, 준수 파일, 등록서 등 관계당국 보고서 일체
- 지리학적 혹은 다른 기술적 보고서, 도안, 사진, 지도 등
- 인근주민들의 불편민원 접수사항
- 유해 혹은 무해 폐기물의 보관, 운송, 처리와 관련한 문서 일체
- 유해 폐기물의 사용 및 발생 리스트
- 주된 환경오염물질인 PCB와 석면의 존재 또는 노출에 대한 기록서류 일체
- 폐기물 운송 및 처리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자와의 연락관계
- 공장부지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형태, 양 및 출처
- 미중권감독위원회(SEC)로의 환경관리 제출자료
- 과거에 있었던 혹은 현재에 진행중인 환경소송, 행정소송, 환경침해에 대한 경고, 사법적 혹은 행정적 명령, 합의 및 화해에 관한 리스트 및 자세한 관련정보
- 환경 관계당국으로부터의 환경보호에 관한 통지, 발표 또는 관계서류 일체
- 환경규제 비준수로 인한 각종 벌과금 리스트
- 환경 검해 및 손해로 인해 야기된 보험 등

아울러 환경실사팀은 자료실에 있는 문서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문의해야 한다. 다양한 공공정보가 주된 출처가 될 것인데, 즉 소유권 기록, 세금 기록, 주택개발부 자료, 회사의 이사진·종업원·인근 지역주민과의 면접, 또한 지역, 주, 연방 기관들의 각종 기록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대상부지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이용, 발전해 왔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 즉 부지와 인근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이용을 조사하고 과거와 현재 진행중인 오염 문제 및 준수사항을 평가하며 피인수회사에 의해 수행된 폐기물 운송 및 처리의 경과를 살펴보고 피인수회사가 수행한 여러 가지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실사팀의 설문지가 이용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본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나 실사 과정에서 무엇이 다루어져야 하는가를 확인하는 항목(checklist)으로서 중요하다. 다른 실사의 측면과 관련하여 환경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조사자의 창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환경실사란 언뜻 보기엔 관련이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도입 방안

환경감사는 다른 실사와 다른 환경실사만의 고유업무이며 대부분의 경우 현지조사가 수반된다. 그 성격상 환경감사는 시설물이나 소유물의 환경적 상태를 점검하는 환경전문 컨설팅트들에 의해 수행된다. 피인수회사의 운영상태는 감사 컨설팅트를 선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컨설팅트들은 피인수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행위유형에 익숙하거나 혹은 대상부지의 성격에 비추어 이에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환경감사 회사가 선정되면 환경실사 담당 변호사는 감사수행자와 만나 조사의 범위를 정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감사전문가는 감사의 범위와 거래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며 실사팀에 의해 수집된 모든 정보들도 감사팀에 전해진다.

환경감사는 대개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단계가 높아질수록 획세 엄격하고 고비용의 조사가 된다. 각각의 단계적 감사의 수행여부는 부지에서 수행된 과거 그리고 현재의 행위의 성격에 달려있다. 유해 폐기물 방출에 따라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됨은 물론이다.

기업의 적절한 환경노력을 증명하기 위해 정규적인 환경감사가 필요하다. 그 수행주체가 누구이며 수행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많은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미국에서는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을 통해 Phase I과 Phase II의 기준이 설정되어 현재 많은 미국의 환경전문가들은
ASTM 기준을 자발적으로 쓰고 있다. ASTM은 CERCLA 도입 이후 폭증하는 기업의 환경책임에 대응하고자 현장감사를 위한 기준설정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소유자, 상공회의소, 여신기관, 환경공학 회사 등이 참가하여 현재 400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개별은행,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의 여신기관에서 ASTM의 Transaction Screen과 Phase I와 유사한 자발적인 환경감사 기준이 수립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들도 부지 및 기업의 성격에 따른 특정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도 사업장의 환경평가를 위한 표준(ISO-14015)을 제작하고 있다.

다. ASTM의 환경현장평가 지침

ASTM의 지침은 몇가지 단계로 나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CERCLA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환경책임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난 점을 주목해야 한다. ASTM에 의하면 통상 Phase I에 가기 전에 ‘거래조사항목’(Transaction Screen Checklist)이라는 설문지 조사가 있다. 각 단계의 대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Transactional Screen Process(TSP)

TSP는 행정관청으로부터의 자료와 부지의 소유자 혹은 운영자와의 면접을 통한 일차적인 조사를 말한다. TSP 조사는 전문적인 환경컨설턴트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하며, 조사과정은 의견서와 함께 의뢰기관에 송부된다. ASTM에 의한 TSP 기준에는 크게 네가지의 항목이 포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도입 방안

합된다.

첫째, 설문지의 완성.
둘째, 부지 현장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checklist) 작성
셋째, 규제당국의 자료 심사.
넷째, 부지의 용도 및 성격에 대한 역사적인 검증 등이다.
조사종료 후 TSP 의견서가 접수되면 이에 기초하여 환경위험 및 책임정도를 평가한다.

나) Phase I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조사단계로서 주요목적은 환경책임의 가능성 여부의 판별이며 책임정도를 정량화하는 것이 아니다. Phase I 조사는 현장에 대한 기술적 조사이며 대개 공인된 환경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최종 보고서에는 전문가의 견지에서 보았을 때 제2단계 감사(Phase II)가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Phase I은 크게 기록심사, 현장조사, 현소유자 및 운영자와의 면접, 그리고 보고서 준비 및 평가의 네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구체적인 수행목록은 아래와 같다.
- 현장조사
  - 부지에 대한 지질학적 심사
  - 인근지역에 대한 위험여부 조사
  - 규제기관에의 보고 및 각종 인허가 조사
  - 피인수회사 경영진 및 종업원과의 면접
  - 인근주민들의 민원발생 여부
  - 석면・PCB 등 검사
부록 133

- 부지에 보관된 유해 폐기물 목록
- 유해 폐기물의 저장, 운반, 처리에 대한 검사
-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여부
- 지역적 수질 및 토양 성격의 판별
- 오염물질 노출에 대한 육안검사, 인근부지에 대한 상태조사
- 부지의 연혁에 대한 평가
- 감사과정에 대한 총보고
- 더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한지의 여부 등을 종합한 최종 평가

다) Phase II

만약 제1단계 감사 후 심각한 오염이 발견된다면 제2단계 평가가 불가피하다. 대개의 경우 제1단계 심사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모든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다. 즉 표면 토양, 지표 및 지하수 수질 등에 대한 표본이 채집되고 분석된다. 부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2단계 심사는 대개 4주에서 8주정도 걸리며 비용도 평균 1만불 이상 많게는 5만불까지도 든다고 한다.

라) Phase III

제3단계는 제2단계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follow-up) 절차이다. 제2단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표본의 수집 및 분석이 주된 방법이 된다. 다만 제3단계 절차는 일반적으로 보다 철저하며 기술적으로 복잡하다.

환경감사를 위한 소요시간은 대상부지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국내
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2~4주 걸린다고 하며 비용은 약 700만원 내외이다. 미국에서는 Phase I에서 2,500불 내지 3,500불 정도가 든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감사는 시민 및 기업인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주는 척도가 된다. 또한 오염원인자에 부담을 지운다는 원칙과도 부합하고 도덕적 투명성을 반영하게 된다. 환경감사를 잘 하는 기업은 대외적 선전효과도 누리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환경감사를 명한 곳도 있으나 산업체에서는 환경감사가 매우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ASTM의 기준에 대해서도 업계의 비판이 없지는 않다. 우선 TSP의 문제점으로서 비용과 시간의 중복성, 보고서의 신뢰도, 조사자의 전문성 및 조사자의 편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Phase I 감사 전에 수행하는 TSP를 비환경전문가가 이를 수행함으로써 적절한 평가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 문제이고, 평가가 불확실할 경우 대개는 TSP 이후에 Phase I으로 자동 이행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TSP는 필요없는 절차가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ASTM 기준은 기본적으로 선량한 구매자 예외(innocent purchaser exception)를 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자체로서 완전한 환경위험의 평가는 될 수 없다. CERCLA상의 책임은 수많은 심각한 환경위험 중 일부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ASTM 기준을 참고로 하여 몇몇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환경평가를 하고 있으나 우리실정에 맞는 자발적 기준의 설립이 시급하다. 실제로 환경실사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컨설팅 기업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국내에서는 98년 이후 외국 기업과의 M&A 협상 과정에서 환경실사의 중요성을 경험하였으나 순수하게 국내기업 사이의 매각협상 과정에서 환경실사가 요청된 경우는 매우 적다고 한다. 또한 아직까지 은행 등 여신기관에서 대출기업의 환경실사를 요구한
경우는 전무하다고 한다.

환경실사시 대부분 미국의 ASTM 지침을 참고로 하고 있으나 그 단계를 전부 밟기보다는 주로 국내 환경법 준수상황만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끝난다고 한다.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지침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아직까지 현행 법령에서 은행의 환경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의미 없는 자발적 기준이 되지 않으려면 기준설정 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기준에 따라 수행한 환경감사는 관련법규상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이재협, 「금융회사의 환경책임과 대응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환경정책연구』 3권 1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6.
이상돈·이창환, 『환경법』 (이진출판사, 1999)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 연구』, 2002.

Bagby, John W., Paula C. Murray and Eric T. Andrews, “How Green was My Balance Sheet?: Corporate Liability and Environmental Disclosure”, 14 VaELJ 228.
Boyer, Marcel and Donatella Porrini, “Modeling the Choice Between Regulation and Liability in Terms of Social Welfare,” CIRANO


Lawrence, Gary M. Due Diligence in Business Transactions, 1999.


Young, Chea-Yuan and Chien-Chun Shih,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in the Banking Industry: How Curr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Abstract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System in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Environmental risk is one of the key risk factors in North American and European banks.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became especially important in U.S. with the establishment of CERCLA in early 1990s. Several banks went into bankruptcy because of the provision on lender liability in CERCLA. As the interests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re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EP have encouraged financial institutions to adopt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system, and most financial institutions in U.S. and Europe integrated environmental risk into their risk management systems.

Until now, any financial institution or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are not serious about environmental risk in Korea. There is a view among environmental law experts that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are already exposed potential lender liability with the amendment of Soil and Environment Protection Law in 1999.

This paper suggests that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be prepared against potential environmental risks and introduces an efficient way of adopting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한국금융연구원 자료판매 코너

총판 : 정부간행물 판매센터(02-394-0337)

<table>
<thead>
<tr>
<th>지역</th>
<th>서 점 명</th>
<th>전 화 번 호</th>
<th>위치</th>
</tr>
</thead>
<tbody>
<tr>
<td>서울</td>
<td>본사 직영서점</td>
<td>(02) 734 - 6818</td>
<td>한국언론재단빌딩 [<a href="http://www.gpcbooks.co.kr">www.gpcbooks.co.kr</a>]</td>
</tr>
<tr>
<td></td>
<td>교보문고(본점)</td>
<td>(02) 397 - 3628</td>
<td>광화문사거리 [<a href="http://www.kyobobook.co.kr">www.kyobobook.co.kr</a>]</td>
</tr>
<tr>
<td></td>
<td>영풍문고(본점)</td>
<td>(02) 399 - 5632</td>
<td>종각 [<a href="http://www.ypbooks.co.kr">www.ypbooks.co.kr</a>]</td>
</tr>
<tr>
<td></td>
<td>(강남점)</td>
<td>(02) 6282 - 1353</td>
<td>강남고속버스터미널</td>
</tr>
<tr>
<td></td>
<td>리브로 올 지</td>
<td>(02) 757 - 8991</td>
<td>을지로 입구 [<a href="http://www.libro.co.kr">www.libro.co.kr</a>]</td>
</tr>
<tr>
<td></td>
<td>서울문고 (반디 앤 루디스)</td>
<td>(02) 6002 - 6071</td>
<td>삼성역(무역센터내)</td>
</tr>
<tr>
<td>부산</td>
<td>영광도서</td>
<td>(051) 816 - 9500</td>
<td>서면로타리</td>
</tr>
<tr>
<td></td>
<td>동보서적</td>
<td>(051) 803 - 8000</td>
<td>태화백화점 옆</td>
</tr>
<tr>
<td>광주</td>
<td>삼복서점</td>
<td>(062) 222 - 0258</td>
<td>도청 옆</td>
</tr>
<tr>
<td>인터넷서점</td>
<td>yes 24</td>
<td><a href="http://www.yes24.com">www.yes24.com</a></td>
<td></td>
</tr>
<tr>
<td></td>
<td>알라딘</td>
<td>[<a href="http://www.aladdin.co.kr">www.aladdin.co.kr</a>]</td>
<td></td>
</tr>
</tbody>
</table>

※ 위 코너 외에 교보문고 및 영풍문고는 각 지방 분점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금융조사보고서 2006-02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환경위험관리 도입 방안

2006년 2월 6일 인쇄
2006년 2월 10일 발행
발행인 최홍식
발행처 한국금융연구원
서울시 중구 명동 1가 4-1 은행회관 5·6·7·8층
전화 : 3705-6278 FAX : 3705-6284
http://www.kif.re.kr; wmaster@sun.kif.re.kr
등록 제1-138(1995. 1. 28)

ISBN 89-503-0323-X 93320 각 7,000원